시험에 잘 나오는

한글 맞춤법 원리

BEST 100

한글 맞춤법 규정의 조항을 따라 가장 자주 출제되는 100개 항목을 골라, 표기 뒤에 숨은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맞는 표기와 틀린 표기를 표로 대조하였다. 외우기 전에 '왜 그렇게 적는지'를 이해하면,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구성	7부 · 100항목	**항목 구성**	원리 → 표기 대조표 → 시험 포인트
대상	중3 ~ 고3 내신 · 수능 문법	**근거**	한글 맞춤법(문체부 고시) · 표준어 규정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이 책을 쓰는 법

맞춤법 문제는 '외운 사람'이 아니라 '원리를 아는 사람'이 맞힌다. 시험은 규정 조항을 보기로 주고 그 원리를 새로운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모든 항목을 세 단으로 짰다.

① 원리 그 표기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규정의 취지를 두세 문장으로 설명한다. 조항 번호를 함께 적어 두었으니 교과서·문제집의 보기와 바로 연결할 수 있다.

② 표기 대조표 맞는 표기와 틀린 표기, 또는 뜻에 따라 갈리는 표기를 표로 나란히 놓았다. 눈으로 대조하며 읽으면 원리가 사례로 굳어진다.

③ 시험 포인트 실제 출제에서 함정으로 쓰이는 짝과 판별 요령을 한두 문장으로 압축하였다. 시험 직전에는 이 부분만 훑어도 된다.

번호 순서는 한글 맞춤법 규정의 조항 순서를 따랐다. 제1부부터 차례로 읽어도 좋고, 틀린 문제의 조항을 찾아 그 항목만 읽어도 좋다. 바른 표기는 바른 생각의 첫걸음이다. 글자 하나를 바르게 적는 태도가 글 전체를, 그리고 공부 전체를 바꾼다.

차례

제1부	소리에 관한 것	01 – 10
제2부	형태에 관한 것 — 체언·용언·접미사	11 – 32
제3부	합성어·접두사·사이시옷	33 – 41
제4부	준말	42 – 51
제5부	띄어쓰기	52 – 66
제6부	그 밖의 것	67 – 74
제7부	구별해 적는 말 · 빈출 표준어	75 – 100

제 1 부

소리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된소리 · 구개음화 · 'ㄷ' 소리 받침 · 'ㅖ, ㅢ' · 두음 법칙 · 겹쳐 나는 소리

01 – 10

01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02	된소리 표기 — 'ㄱ, ㅂ'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03	구개음화 — 'ㄷ, ㅌ' 받침을 그대로 적는다
04	'ㄷ' 소리 받침 — 근거가 없으면 'ㅅ'으로 적는다
05	'ㅖ'로 적는 말 — 계·례·몌·폐·혜
06	'ㅢ'로 적는 말 — 의의, 무늬, 희망
07	두음 법칙 ① — '녀·뇨·뉴·니'가 첫머리에 오면 '여·요·유·이'
08	두음 법칙 ② — '랴·려·례·료·류·리'가 첫머리에 오면 '야·여·예·요·유·이'
09	두음 법칙 ③ — '라·래·로·뢰·루·르'가 첫머리에 오면 '나·내·노·뇌·누·느'
10	겹쳐 나는 소리 — 같은 글자로 반복해 적는다

01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표준어를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뜻을 알아보기 쉽도록 한 형태소는 어디서나 같은 모양으로 적는다. '꽃'은 [꼬치], [꼰만], [꼳]처럼 환경마다 소리가 달라지지만 뜻이 같으므로 언제나 '꽃'으로 고정해 적는다. 이것이 '어법에 맞도록'의 뜻이며, 맞춤법 전체를 꿰뚫는 기본 원리이다.

원리	예
소리대로 적음(표음주의)	하늘, 나무, 구름, 달, 바람
어법에 맞게 적음(표의주의)	꽃이[꼬치] · 꽃나무[꼰나무] · 꽃만[꼰만]
어원이 멀어지면 소리대로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 **시험 포인트** '어법에 맞도록'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뜻이다. 원형을 밝히는 이유(의미 파악의 효율)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02 된소리 표기 — 'ㄱ, ㅂ'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소리대로 적는다. 그러나 'ㄱ, ㅂ'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가 나는 것이 당연한 현상(된소리되기)이므로, 굳이 된소리로 적지 않아도 발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수, 깍두기'처럼 예사소리로 적는다.

환경	맞는 표기	틀린 표기
두 모음 사이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썩, 어찌, 이따금	소적새, 어개
ㄴ·ㄹ·ㅁ·ㅇ 받침 뒤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산듯하다, 잔득
ㄱ·ㅂ 받침 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국쑤, 깍뚜기, 갑짜기, 몹씨

시험 포인트 '갑자기, 몹시, 법석'을 '갑짜기, 몹씨, 법썩'으로 쓰면 틀린다. 반대로 '산뜻하다, 잔뜩'은 'ㄴ' 뒤라서 된소리를 적는다.

03 구개음화 — 'ㄷ, ㅌ' 받침을 그대로 적는다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때는 [지, 치]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어간과 접미사의 원래 모양을 밝혀 적어야 뜻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소리는 바뀌어도 형태는 지킨다는 제1항의 원리가 적용된 예이다.

맞는 표기	발음	틀린 표기
맏이, 해돋이, 굳이, 같이, 끝이	[마지] [해도지] [구지] [가치] [끄치]	마지, 해도지, 가치
핥이다, 걷히다, 닫히다, 묻히다	[할치다] [거치다] [다치다] [무치다]	할치다, 거치다

시험 포인트 '굳이'와 '구지', '같이'와 '가치'를 묻는 문제가 단골이다. 다만 '잔디, 버티다, 느티나무'처럼 한 형태소 안의 'ㄷ, ㅌ'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소리대로 쓴다.

04 'ㄷ' 소리 받침 — 근거가 없으면 'ㅅ'으로 적는다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걷-'(걷다)처럼 'ㄷ'이 원형인 경우가 아니라면, 관습적으로 'ㅅ'을 대표 글자로 쓰는 것이다.

맞는 표기	틀린 표기
덧저고리, 돗자리, 엇셈, 웃어른, 핫옷,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덛저고리, 돋자리, 얼핃
뭇[衆], 옛, 첫, 헛	뭍(×, '육지'의 뜻일 때만 '뭍')

시험 포인트 '웃어른'(ㅅ)과 '윗어른'(×)을 묻는 문제, '옛, 첫, 헛'의 받침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05 'ㅖ'로 적는 말 — 계·례·몌·폐·혜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ㅖ]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한자음의 전통적 표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한자 '偈(게), 揭(게), 憩(게)'는 본음이 'ㅔ'이므로 'ㅔ'로 적는다.

'ㅖ'로 적음	'ㅔ'로 적음(본음)
계수(桂樹), 사례(謝禮), 연몌(連袂), 폐품(廢品), 혜택(惠澤), 계집, 핑계, 계시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시험 포인트 '휴게실'을 '휴계실'로, '게시판'을 '계시판'으로 쓰면 틀린다. 반대로 '폐품, 혜택, 핑계'는 'ㅖ'다.

06 'ㅢ'로 적는 말 — 의의, 무늬, 희망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ㅢ'로 적는다. 발음은 변하지만 전통적 표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8항과 같은 취지이다.

맞는 표기	발음	틀린 표기
의의(意義), 본의(本義), 무늬, 보늬, 오늬, 하늬바람, 늴리리, 닁큼, 띄어쓰기	[의이] [보니] [무니] [하니바람]	무니, 하니바람
씌어, 틔어, 희망(希望), 희다, 유희(遊戲)	[씨어] [티어] [히망] [히다]	히망, 히다

시험 포인트 '무늬'를 '무니'로 쓰는 오답이 가장 흔하다. '띄어쓰기'의 '띄'도 'ㅢ'를 지킨다.

07 두음 법칙 ① — '녀·뇨·뉴·니'가 첫머리에 오면 '여·요·유·이'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단어 첫머리가 아니면 본음대로 적는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되면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의존 명사 '냥, 냥쭝, 년(年)'은 본음대로 적는다.

구분	예
첫머리 → 두음 법칙 적용	여자(女子), 연세(年歲), 요소(尿素), 유대(紐帶), 이토(泥土), 익명(匿名)
첫머리 아님 → 본음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접두사·합성어 뒷말 → 적용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한국여자대학
의존 명사 → 본음	몇 냥, 몇 냥쭝, 몇 년(年)

시험 포인트 '신여성, 남존여비'처럼 접두사·합성어의 뒷말은 독립된 단어로 보아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 출제 포인트이다.

08 두음 법칙 ② — '랴·려·례·료·류·리'가 첫머리에 오면 '야·여·예·요·유·이'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는 단어 첫머리에서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외자로 된 이름이 성에 붙을 때는 본음대로 적을 수 있으며,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구분	예
첫머리 → 적용	양심(良心), 역사(歷史), 예의(禮儀), 용궁(龍宮), 유행(流行), 이발(理髮)
첫머리 아님 → 본음	개량, 선량, 수력, 협력, 사례, 혼례, 와룡, 쌍룡, 하류, 급류, 도리, 진리
모음·ㄴ 뒤 '렬·률' → '열·율'	나열, 치열, 비열, 규율, 비율, 실패율, 분열, 선열, 진열, 선율, 전율, 백분율
ㄴ 이외 받침 뒤 → 본음	행렬(行列), 법률(法律), 확률(確率), 합격률, 출석률
외자 이름·준말 → 본음 허용	신립(申砬), 최린(崔麟), 하륜(河崙) /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접두사·합성어 뒷말 → 적용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시험 포인트 '비율·백분율'은 모음·ㄴ 뒤라 '율', '확률·합격률'은 'ㄱ' 받침 뒤라 '률'이다. '그럴 리가 없다'의 '리(理)'는 의존 명사이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09 두음 법칙 ③ — '라·래·로·뢰·루·르'가 첫머리에 오면 '나·내·노·뇌·누·느'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는 단어 첫머리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어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단어 첫머리가 아니면 본음대로 적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 된 말이나 합성어는 뒷말이 독립된 단어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구분	예
첫머리 → 'ㄴ'	낙원(樂園), 내일(來日), 노인(老人), 뇌성(雷聲), 누각(樓閣), 능묘(陵墓)
첫머리 아님 → 본음	쾌락, 극락, 거래, 왕래, 부로, 연로, 지뢰, 낙뢰, 고루, 광한루, 동구릉, 가정란(家庭欄)
접두사·합성어 → 적용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시험 포인트 '가정란·독자란'은 한자어 뒤라 '란', '어린이난·가십난'은 고유어·외래어 뒤라 '난'으로 적는다. 단어 결합 방식에 따라 표기가 갈리는 대표 사례이다.

10 겹쳐 나는 소리 — 같은 글자로 반복해 적는다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뒤 음절에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앞 음절과 같은 글자를 써서 반복 구조가 드러나게 한다. 한자어에서도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처럼 실제 발음이 반복형이면 같은 글자로 적는다.

맞는 표기	틀린 표기
딱딱, 쌕쌕, 씩씩, 똑딱똑딱, 쓱싹쓱싹, 연연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相從), 누누이(屢屢-)	딱닥, 쌕색, 씩식, 연련불망, 유류상종, 누루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꼿꼿하다, 놀놀하다, 눅눅하다, 밋밋하다, 싹싹하다, 쌉쌀하다, 씁쓸하다, 짭짤하다	꼿곳하다, 눅눌하다, 밋밑하다, 싹삭하다, 쌉살하다, 씁슬하다, 짭잘하다

시험 포인트 '냉랭하다, 낭랑하다, 늠름하다, 연년생, 적나라하다, 역력하다'는 뒤 음절이 본음으로 소리 나므로 제13항의 예외다. '연연불망'과 '연년생'을 나란히 놓고 묻는 문제에 주의한다.

제 2 부

형태에 관한 것 — 체언·용언·접미사

제4장 제1절~제3절

체언과 조사 · 어간과 어미 · 불규칙 활용 ·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1 – 32

11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12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넘어지다 / 드러나다
13	어미 '-아/-어'의 선택 — 양성 모음 뒤 '-아', 그 밖에는 '-어'
14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
15	'ㄹ' 탈락 —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16	'ㅅ' 불규칙 —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17	'ㅎ' 불규칙 —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래
18	'ㅜ, ㅡ' 탈락 — 푸다: 퍼 / 담그다: 담가 / 잠그다: 잠가
19	'ㄷ' 불규칙 — 걷다: 걸어 / 싣다: 실어 / 묻다[問]: 물어
20	'ㅂ' 불규칙 — 가깝다: 가까워 / 돕다: 도와 / 곱다: 고와
21	'여' 불규칙 — 하다: 하여, 하여서, 하였다
22	'러' 불규칙 — 이르다[至]: 이르러 / 푸르다: 푸르러
23	'르' 불규칙 — 부르다: 불러 / 흐르다: 흘러 / 빠르다: 빨라
24	'-이, -음' 명사 · '-이, -히' 부사 — 어간 원형을 밝힌다
25	명사 뒤 '-이' — 곳곳이, 낱낱이, 바둑이 / 바가지, 이파리
26	자음 접미사 — 넓적하다·굵직하다 / 널따랗다·널찍하다·짤막하다
27	사동·피동 접미사 — 맡기다, 굳히다, 돋구다, 일으키다 / 바치다, 부치다
28	'-치-', '-뜨리-/-트리-' — 놓치다, 부딪치다, 떨어뜨리다/떨어트리다
29	'-하다·-거리다'가 붙는 어근 + '-이' — 오뚝이, 꿀꿀이 / 개구리, 뻐꾸기
30	'-거리다'가 붙는 어근 + '-이다' — 깜짝이다, 끄덕이다, 움직이다
31	'-하다' 어근 + '-히/-이' 부사 — 급히, 꾸준히, 깨끗이 / 곰곰이, 더욱이, 일찍이
32	'-하다·-없다'가 붙는 용언 — 딱하다, 숱하다 / 부질없다, 하염없다

11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제14항

체언에 조사가 붙을 때 소리가 달라지더라도 체언과 조사의 원형을 각각 밝혀 적는다. '값'이 [갑], [갑씨], [감만]으로 소리 나도 '값이, 값을, 값만'으로 적어야 '값'이라는 하나의 단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맞는 표기	발음	틀린 표기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떠기] [떠글] [떠게] [떡또] [떵만]	떠기, 떠글

맞는 표기	발음	틀린 표기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갑씨] [갑쓸] [갑쎄] [갑또] [감만]	갑씨, 갑쓸, 감만
넋이, 흙이, 삶이, 여덟이, 앞이	[넉씨] [흘기] [살미] [여덜비] [아피]	넉씨, 흘기, 살미

시험 포인트 '넋이, 흙이, 삶이'처럼 겹받침 체언에 조사가 붙은 표기를 묻는다. 소리는 연음·탈락이 일어나도 표기는 체언 원형을 지킨다.

12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넘어지다 / 드러나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두 용언이 어울려 한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혀 적고(넘어지다), 본뜻에서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드러나다). 종결형에서 쓰이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더라도 '-오'로, 연결형의 '이요'는 '-요'로 적는다.

구분	예
본뜻 유지 → 원형 밝힘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본뜻 멀어짐 → 소리대로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종결 어미 '-오'	이것은 책이오. / 이리로 오시오. / 이것은 책이 아니오.
연결 어미 '-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시험 포인트 '드러나다'는 '들다+나다'의 뜻이 사라졌으므로 '들어나다'(×)로 쓰지 않는다. 종결형 '책이오'와 연결형 '책이요'의 구별은 단골 문제이다.

13 어미 '-아/-어'의 선택 — 양성 모음 뒤 '-아', 그 밖에는 '-어'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는 '-어'로 적는다. 모음 조화의 원리이다. 'ㅐ, ㅚ'는 'ㅏ, ㅗ' 계열처럼 보이지만 음성 모음으로 취급하여 '-어'를 쓴다.

어간 모음	예
ㅏ, ㅗ → '-아'	나아, 나아도, 나아서 / 막아, 막아도 / 얇아, 얇아도 / 돌아, 돌아도 / 보아, 보아도
그 밖(ㅓ ㅜ ㅡ ㅣ ㅐ ㅔ ㅚ ㅟ) → '-어'	개어, 개어도 / 겪어, 겪어도 / 되어, 되어도 / 베어 / 쉬어 / 저어 / 주어 / 피어 / 희어

시험 포인트 '되어'(→돼)는 'ㅚ' 뒤이므로 '-어'가 붙는다. '되아'(×)는 없다. 어미 '-아/-어' 구별은 준말(제35항)과 연결해 출제된다.

14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요'는 '-요'로 적는다. 이때 '-요'는 상대를 높이는 보조사로, 종결 어미 뒤에 덧붙어 존대의 뜻을 더한다. 어미 '-어'에 '-요'가 붙으면 '-어요'가 된다.

기본형	'-요' 덧붙음
읽어 / 참으리 / 좋지	읽어요 / 참으리요 / 좋지요
가 / 먹지 / 그렇지	가요 / 먹지요 / 그렇지요

시험 포인트 '좋지요'는 '좋지'에 조사 '요'가 붙은 것이므로 떼어도 문장이 성립한다. '책이요'(제15항 연결형)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15 'ㄹ' 탈락 —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제18항 1

어간의 끝 'ㄹ'이 'ㄴ, ㅂ, ㅅ, 오'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줄어지면 준 대로 적는다. 모든 'ㄹ' 받침 용언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므로 '규칙 활용'으로 보지만, 표기에서 'ㄹ'이 사라지는 점을 익혀 두어야 한다. 'ㄹ'이 'ㄷ, ㅈ' 앞에서 줄어진 말도 준 대로 적는다.

기본형	활용 예	틀린 표기
갈다, 놀다, 불다, 둥글다, 어질다	가니 · 간 · 갑니다 · 가시다 · 가오 / 노니 · 논 · 놉니다 / 부니 · 분 · 붑니다 / 둥그니 · 둥근 / 어지니 · 어진	갈으니, 놀으니, 둥글은, 어질은
'ㄷ, ㅈ' 앞에서 줆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말지못하다, 말지않다

시험 포인트 '거친 들판'(○)과 '거칠은 들판'(×), '낯선 사람'(○)과 '낯설은'(×), '녹슨'(○)과 '녹슬은'(×)이 대표 출제 예이다.

16 'ㅅ' 불규칙 —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제18항 2

어간의 끝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줄어지면 준 대로 적는다. 모든 'ㅅ' 받침 용언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서(벗다 → 벗어, 씻다 → 씻어) 불규칙 활용이다.

구분	예
'ㅅ' 탈락(불규칙)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 낫다: 나아, 나으니, 나았다 / 잇다: 이어, 이으니 / 짓다: 지어, 지으니, 지었다 / 붓다: 부어 / 젓다: 저어
'ㅅ' 유지(규칙)	벗다: 벗어, 벗으니 / 빗다: 빗어 / 솟다: 솟아 / 씻다: 씻어 / 웃다: 웃어 / 빼앗다: 빼앗아

시험 포인트 '낫다'의 '나아'(병이 나아), '붓다'의 '부어'(얼굴이 부어), '젓다'의 '저어'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같은 'ㅅ' 받침인데 활용이 다른 '웃다·씻다'와 짝지어 출제된다.

17 'ㅎ' 불규칙 —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래

제18항 3

어간의 끝 'ㅎ'이 어미 앞에서 줄어지면 준 대로 적는다. 'ㅎ' 받침 형용사(좋다 제외) 대부분이 해당한다. '-아/-어'가 붙으면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어 '그래, 까매, 하얘'와 같은 형태가 된다.

기본형	활용 예	틀린 표기
그렇다	그러니 · 그럴 · 그러면 · 그러오 · 그래 · 그랬다	그렇니, 그렇어
까맣다, 동그랗다, 퍼렇다, 하얗다, 노랗다	까마니 · 까만 · 까매 · 까맸다 / 동그라니 · 동그래 / 퍼러니 · 퍼레 / 하야니 · 하얘 · 하얬다 / 노라니 · 노래	까맣니, 하얗어, 노랗은
규칙(ㅎ 유지)	좋다: 좋으니 · 좋은 · 좋아 / 놓다: 놓으니 · 놓아 / 넣다: 넣어	좋니(×), 좋은(○)

시험 포인트 '좋다·놓다·넣다·낳다'는 'ㅎ'이 탈락하지 않는 규칙 활용이다. '노란'(○)·'노랗은'(×), '하얘'(○)·'하얗어'(×)가 핵심이다.

18 'ㅜ, ㅡ' 탈락 — 푸다: 퍼 / 담그다: 담가 / 잠그다: 잠가

제18항 4

어간의 끝 'ㅜ, ㅡ'가 어미 '-아/-어' 앞에서 줄어지면 준 대로 적는다. 'ㅡ' 탈락은 모든 'ㅡ' 어간에서 일어나므로 규칙 활용이고, 'ㅜ' 탈락은 '푸다' 하나뿐이어서 불규칙 활용이다.

기본형	맞는 활용	틀린 활용
푸다	퍼, 펐다	푸어, 풔
뜨다, 끄다, 크다, 고프다, 바쁘다, 예쁘다	떠 · 떴다 / 꺼 · 껐다 / 커 · 컸다 / 고파 / 바빠 / 예뻐	뜨어, 끄어, 크어
담그다, 잠그다, 치르다, 들르다, 따르다	담가 · 담갔다 / 잠가 · 잠갔다 / 치러 · 치렀다 / 들러 · 들렀다 / 따라	담궈, 잠궈, 치뤄, 들려

시험 포인트 '김치를 담가'(○)·'담궈'(×), '문을 잠가'(○)·'잠궈'(×), '시험을 치러'(○)·'치뤄'(×)는 시험과 실생활 모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표기이다. 기본형이 '담구다·잠구다·치루다'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한다.

19 'ㄷ' 불규칙 — 걷다: 걸어 / 싣다: 실어 / 묻다[問]: 물어

제18항 5

어간의 끝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뀌면 바뀐 대로 적는다. '묻다[埋], 믿다, 얻다, 닫다, 받다'처럼 'ㄷ'이 그대로 유지되는 규칙 용언과 구별해야 한다.

구분	예
'ㄷ → ㄹ'(불규칙)	걷다[步]: 걸어, 걸으니, 걸었다 / 듣다: 들어, 들으니 / 묻다[問]: 물어, 물으니 / 싣다: 실어, 실으니 / 깨닫다: 깨달아 / 붇다: 불어, 불으니
'ㄷ' 유지(규칙)	묻다[埋]: 묻어, 묻으니 / 믿다: 믿어 / 얻다: 얻어 / 닫다: 닫아 / 받다: 받아 / 쏟다: 쏟아

시험 포인트 '짐을 실어'(○)·'싣어'(×), '라면이 불어'(○, 기본형 '붇다')를 묻는다. '길을 묻다'는 '물어', '땅에 묻다'는 '묻어'로, 뜻에 따라 활용이 달라지는 점이 출제의 핵심이다.

20 'ㅂ' 불규칙 — 가깝다: 가까워 / 돕다: 도와 / 곱다: 고와

제18항 6

어간의 끝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우'로 바뀌면 바뀐 대로 적는다. 다만 '돕다, 곱다'처럼 어간이 단음절이고 모음이 'ㅗ'인 경우에만 '-아'가 결합하여 '와'로 적고, 그 밖에는 모두 '워'로 적는다. '잡다, 뽑다, 씹다, 좁다'는 'ㅂ'이 유지되는 규칙 용언이다.

구분	예	틀린 표기
'ㅂ → 우'(불규칙)	깁다: 기워 / 굽다[炙]: 구워 / 가깝다: 가까워 / 괴롭다: 괴로워 / 맵다: 매워 / 무겁다: 무거워 / 밉다: 미워 / 쉽다: 쉬워 / 아름답다: 아름다워 / 새롭다: 새로워	가까와, 괴로와, 아름다와, 새로와
단음절 'ㅗ' 어간 → '와'	돕다: 도와, 도왔다 / 곱다: 고와, 고왔다	도워, 고워
'ㅂ' 유지(규칙)	잡다: 잡아 / 뽑다: 뽑아 / 씹다: 씹어 / 좁다: 좁아 / 굽다[曲]: 굽어	—

시험 포인트 1988년 개정 이후 '아름다와, 괴로와'는 틀린 표기다. '와'로 적는 것은 '돕다, 곱다' 둘뿐이라는 점을 외워 두면 된다. '굽다'는 '고기를 구워'(불규칙)와 '허리가 굽어'(규칙)로 뜻에 따라 다르다.

21 '여' 불규칙 — 하다: 하여, 하여서, 하였다

제18항 7

어간 '하-' 뒤에 오는 어미 '-아'가 '-여'로 바뀌면 바뀐 대로 적는다. '하다'와 '-하다'가 붙은 모든 용언에서 일어나며, '하여'는 다시 '해'로 줄어든다(제34항 붙임 2).

기본형	활용 예	준말
하다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였다	해, 해서, 해도, 했다
공부하다, 사랑하다, 깨끗하다	공부하여, 사랑하여서, 깨끗하였다	공부해, 사랑해서, 깨끗했다

시험 포인트 '하아'(×)는 없다. 어미 자체가 바뀌는 '여' 불규칙과, 어간이 바뀌는 'ㅅ·ㄷ·ㅂ' 불규칙, 어간·어미가 모두 바뀌는 'ㅎ' 불규칙을 분류하는 문제가 나온다.

22 '러' 불규칙 — 이르다[至]: 이르러 / 푸르다: 푸르러

제18항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면 바뀐 대로 적는다. '이르다[至], 노르다, 누르다, 푸르다' 네 단어에서만 일어나는 어미 불규칙이다.

기본형	맞는 활용	틀린 활용
이르다[至](도착하다)	이르러, 이르렀다	일러, 이르어

기본형	맞는 활용	틀린 활용
노르다, 누르다[黃], 푸르다	노르러 / 누르러 / 푸르러, 푸르렀다	놀러, 눌러, 풀러

시험 포인트 '이르다'는 뜻에 따라 활용이 세 가지다. '목적지에 이르러'(至, 러 불규칙), '잘못을 일러'(謂, 르 불규칙), '시간이 일러'(早, 르 불규칙).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

23 '르' 불규칙 — 부르다: 불러 / 흐르다: 흘러 / 빠르다: 빨라

제18항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ㄹ'이 앞 음절 받침으로 올라붙으면서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뀌면 바뀐 대로 적는다.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불규칙으로, '르' 어간 용언 대부분이 해당한다.

기본형	맞는 활용	틀린 활용
가르다, 바르다, 빠르다, 오르다, 모르다	갈라 · 갈랐다 / 발라 / 빨라 / 올라 / 몰라	가르아, 빠르아
부르다, 거르다, 구르다, 벼르다, 이르다[謂], 지르다, 흐르다, 기르다	불러 · 불렀다 / 걸러 / 굴러 / 별러 / 일러 / 질러 / 흘러 / 길러	부르어, 흐르어, 흘르다(기본형 ×)

시험 포인트 '흘러'의 기본형은 '흐르다'이지 '흘르다'(×)가 아니다. '따르다'는 '따라'(ㅡ 탈락, 규칙), '치르다'는 '치러'(ㅡ 탈락)로, '르' 불규칙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나온다.

24 '-이, -음' 명사 · '-이, -히' 부사 — 어간 원형을 밝힌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 명사가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만 어간에 '-이,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은 것도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구분	예
'-이' 명사 → 원형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훑이, 살림살이, 쇠붙이
'-음/-ㅁ' 명사 → 원형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앎, 만듦, 베풂
'-이, -히' 부사 → 원형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 밝히, 익히, 작히
뜻이 멀어짐 → 소리대로	굽도리, 다리[髢],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다른 접미사 → 소리대로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 너무, 도로, 바투, 비로소, 자주, 차마

시험 포인트 '얼음'(얼다+음)과 '어름'(경계), '걸음'과 '거름', '목걸이'와 '목거리'를 묻는다. '마개(막+애), 무덤(묻+엄), 너머(넘+어)'는 '-이, -음'이 아닌 접미사라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25 명사 뒤 '-이' — 곳곳이, 낱낱이, 바둑이 / 바가지, 이파리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부사가 된 것(곳곳이)과 명사가 된 것(바둑이) 모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구분	예
명사+'-이' → 부사	곳곳이, 낱낱이, 몫몫이, 샅샅이, 앞앞이, 집집이
명사+'-이' → 명사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다른 접미사 → 소리대로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시험 포인트 '이파리'(잎+아리), '지붕'(집+웅), '바가지'(박+아지)는 '-이'가 아닌 접미사이므로 '잎아리, 집웅, 박아지'(×)로 쓰지 않는다.

26 자음 접미사 — 넓적하다·굵직하다 / 널따랗다·널찍하다·짤막하다

제21항

명사나 용언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과,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넓적하다'는 [넙쩌카다]로 'ㅂ'이 발음되므로 원형을, '널따랗다'는 [널따라타]로 'ㅂ'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구분	예
명사+자음 접미사 → 원형	값지다, 홑지다, 넋두리, 빛깔, 옆댕이, 잎사귀
어간+자음 접미사 → 원형	낚시, 늙정이, 덮개, 뜯게질, 갉작거리다, 굵다랗다, 굵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랗다, 늙수그레하다, 얽죽얽죽하다
겹받침 끝소리 안 남 → 소리대로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큼하다, 얄따랗다, 얄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실컷
어원 불분명·뜻 멀어짐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시험 포인트 '넓-'에서 온 '넓적하다·넓죽하다'(ㅂ 발음됨)와 '널따랗다·널찍하다'(ㅂ 발음 안 됨)의 대조가 최빈출이다. '짧-'에서 온 '짤막하다·짤따랗다'도 같은 원리다.

27 사동·피동 접미사 — 맡기다, 굳히다, 돋구다, 일으키다 / 바치다, 부치다

제22항 1

용언의 어간에 사동·피동 접미사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어서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구분	예
원형 밝힘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 뚫리다, 울리다 / 낚이다, 쌓이다, 핥이다 /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얽히다, 잡히다 / 돋구다, 솟구다 / 돋우다 / 갖추다, 곧추다, 맞추다 / 일으키다, 돌이키다 / 없애다
본뜻 멀어짐 → 소리대로	도리다(칼로 ~), 드리다(용돈을 ~),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 부치다(편지를 ~),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시험 포인트 '굳히다'(굳다+히), '앉히다'(앉다+히)처럼 어간과 접미사가 보이는 표기와, '바치다·부치다'처럼 원형이 보이지 않는 표기를 가려 묻는다. '돋구다'(안경 도수를 높이다)와 '돋우다'(그 외)의 뜻 구별도 출제된다.

28 '-치-', '-뜨리-/-트리-' — 놓치다, 부딪치다, 떨어뜨리다/떨어트리다

제22항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뜨리-'와 '-트리-'는 둘 다 표준어로 인정되는 복수 표준어이다. 다만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는 접미사 결합형이지만 소리대로 적는다.

구분	예
'-치-' → 원형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밭치다, 부딪치다, 뻗치다, 엎치다
'-뜨리-/-트리-' 복수 표준어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쏟뜨리다/쏟트리다, 젖뜨리다/젖트리다, 찢뜨리다/찢트리다, 흩뜨리다/흩트리다, 떨어뜨리다/떨어트리다, 깨뜨리다/깨트리다
소리대로 적는 예외	미덥다(믿+업), 우습다(웃+읍), 미쁘다(믿+브)

시험 포인트 '놓치다'(○)·'노치다'(×), '부딪치다'(○)·'부딪히다'(피동, 뜻이 다름)를 묻는다. '깨뜨리다'와 '깨트리다'는 둘 다 맞다.

29 '-하다··거리다'가 붙는 어근 + '-이' — 오뚝이, 꿀꿀이 / 개구리, 뻐꾸기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오뚝이'는 '오뚝하다'가 있으므로 원형을 밝히고, '개구리'는 '개굴하다·개굴거리다'가 없으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어근의 쓰임 여부가 표기를 결정한다.

구분	예
'-하다··거리다' 가능 → 원형	깔쭉이, 꿀꿀이, 눈깜짝이, 더펄이, 배불뚝이, 삐죽이, 살살이, 쌕쌕이, 오뚝이, 코납작이, 푸석이, 홀쭉이
'-하다··거리다' 불가 → 소리대로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꽹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뻐꾸기, 얼루기, 칼싹두기

시험 포인트 '오뚝이'(○)·'오뚜기'(×, 상표명과 혼동 주의), '홀쭉이'(○)·'홀쭈기'(×)가 대표 예이다. '뻐꾹거리다'는 있어도 '뻐꾸기'의 어근은 '뻐꾸-'로 보아 소리대로 적는다.

30 '-거리다'가 붙는 어근 + '-이다' — 깜짝이다, 끄덕이다, 움직이다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혀 적는다. '깜짝거리다'가 있으므로 '깜짝이다'로 적고, '깜짜기다'(×)처럼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

맞는 표기	틀린 표기
깜짝이다, 꾸벅이다, 끄덕이다, 뒤척이다, 들먹이다, 망설이다, 번득이다, 번쩍이다	깜짜기다, 꾸버기다, 끄더기다, 뒤처기다
속삭이다, 숙덕이다, 울먹이다, 움직이다, 지껄이다, 퍼덕이다, 허덕이다, 헐떡이다	속사기다, 울머기다, 움지기다, 지꺼리다

시험 포인트 '망설이다'(○)·'망서리다'(×), '지껄이다'(○)·'지꺼리다'(×)처럼 어근 경계를 흐린 오답이 나온다. '-거리다'를 붙여 보아 성립하면 어근을 밝힌다.

31 '-하다' 어근 + '-히/-이' 부사 — 급히, 꾸준히, 깨끗이 / 곰곰이, 더욱이, 일찍이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구분	예
'-하다' 어근 + '-히/-이' → 원형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하다' 안 붙음 → 소리대로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부사 + '-이' → 원형	곰곰이, 더욱이, 생급스레,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시험 포인트 '더욱이'(○)·'더우기'(×), '일찍이'(○)·'일찌기'(×), '곰곰이'(○)·'곰곰히'(×)가 가장 자주 나온다. '반드시(꼭)'와 '반듯이(바르게)'의 구별은 제57항과 연결된다.

32 '-하다··없다'가 붙는 용언 — 딱하다, 숱하다 / 부질없다, 하염없다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는다. 어근이 홀로 쓰이지 않더라도 접미사의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다.

구분	예
'-하다'	딱하다, 숱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없다'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시험 포인트 '하염없다'를 '하염 없다'로 띄어 쓰거나 '숱하다'를 '숫하다'로 쓰면 틀린다. 어근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아도 '-하다··없다'는 붙여 적는다.

제 3 부

합성어·접두사·사이시옷

제4장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원형 밝힘 · 'ㄹ' 탈락 · 'ㄹ → ㄷ' · 사이시옷 · 'ㅂ, ㅎ' 덧남 · 수-/숫-

33 – 41

33	합성어·접두 파생어는 원형을 밝힌다 — 꽃잎, 싫증, 며칠, 사랑니
34	'ㄹ' 탈락 합성어 — 따님, 바느질, 소나무, 화살
35	'ㄹ'이 'ㄷ'으로 바뀐 합성어 — 숟가락, 이튿날, 섣달, 삼짇날
36	사이시옷 ① 순우리말 합성어 — 나룻배, 냇가, 아랫니, 나뭇잎
37	사이시옷 ② 순우리말 + 한자어 — 전셋집, 찻잔, 제삿날, 예삿일
38	사이시옷 ③ 두 글자 한자어는 여섯 개만 —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39	사이시옷 판정 네 조건 — 머리말, 인사말, 위층, 뒤쪽, 해님, 피자집은 왜 안 되나
40	'ㅂ' 소리가 덧나는 말 — 멥쌀, 볍씨, 좁쌀, 햅쌀, 입때, 접때
41	'ㅎ' 소리가 덧나는 말과 '수-/숫-' — 머리카락, 살코기, 수탉, 암캐 / 숫양, 숫염소, 숫쥐

33 합성어·접두 파생어는 원형을 밝힌다 — 꽃잎, 싫증, 며칠, 사랑니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만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과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이[齒]'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로 소리 날 때는 '니'로 적는다.

구분	예
합성어 → 원형	국말이, 꺾꽂이, 꽃잎, 끝장, 물난리, 밑천, 부엌일, 싫증, 옷안, 웃옷, 젖몸살, 첫아들, 칼날, 팥알, 헛웃음, 홀아비, 홑몸, 흙내
접두사 파생어 → 원형	값없다, 겉늙다, 굶주리다, 낮잡다, 맞먹다, 받내다, 벋놓다, 빗나가다, 빛나다, 새파랗다, 샛노랗다, 시꺼멓다, 싯누렇다, 엇나가다, 엎누르다, 엿듣다, 옻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소리가 특이하게 변함	할아버지, 할아범
어원 불분명 → 소리대로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이' → '니'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젖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시험 포인트 '며칠'(○)·'몇일'(×)은 '몇+일'로 분석되면 [며딜]로 소리 나야 하는데 실제 발음이 [며칠]이므로 어원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리대로 적는다. 최다 출제 항목 중 하나이다.

34 'ㄹ' 탈락 합성어 — 따님, 바느질, 소나무, 화살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역사적으로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한 말들로, 현대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굳어졌다.

맞는 표기	원래 결합	틀린 표기
다달이, 따님, 마되, 마소, 무자위, 바느질	달+달, 딸+님, 말+되, 말+소, 물+자위, 바늘+질	달달이, 딸님, 바늘질
부나비, 부삽, 부손, 소나무, 싸전, 여닫이, 우짖다, 화살	불+나비, 불+삽, 불+손, 솔+나무, 쌀+전, 열+닫이, 울+짖다, 활+살	불나비, 솔나무, 쌀전, 활살

시험 포인트 '따님, 아드님'(○)·'딸님, 아들님'(×), '소나무'(○)·'솔나무'(×)가 대표 예이다. 'ㄹ'이 어떤 소리 앞에서 탈락했는지(ㄴ, ㄷ, ㅅ, ㅈ) 묻기도 한다.

35 'ㄹ'이 'ㄷ'으로 바뀐 합성어 — 숟가락, 이튿날, 섣달, 삼짇날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ㄹ'이 탈락한 자리에 사이시옷처럼 보이는 소리가 들어간 것인데, 원래 'ㄹ'이 있었음을 보이기 위해 'ㅅ'이 아닌 'ㄷ'으로 적는다.

맞는 표기	원래 결합	틀린 표기
반짇고리, 사흗날, 삼짇날, 섣달, 숟가락, 이튿날	바느질+고리, 사흘+날, 삼질+날, 설+달, 술+가락, 이틀+날	반짓고리, 사흣날, 삼짓날, 섯달, 숫가락, 이틋날
잗주름, 풋소, 섣부르다, 잗다듬다, 잗다랗다	잘+주름, 풀+소, 설+부르다, 잘+다듬다, 잘+다랗다	잣주름, 풋소, 섯부르다

시험 포인트 '숟가락'(술+가락, ㄷ)과 '젓가락'(저+가락, 사이시옷 ㅅ)을 나란히 놓고 그 차이를 묻는 문제가 단골이다. '이튿날'(○)·'이틀날·이틋날'(×)도 빈출이다.

36 사이시옷 ① 순우리말 합성어 — 나룻배, 냇가, 아랫니, 나뭇잎

제30항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냇가),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아랫니),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나뭇잎)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조건	예
뒷말 첫소리 → 된소리	고랫재,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댓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볏가리, 부싯돌, 선짓국, 쇳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잿더미, 조갯살, 찻집, 쳇바퀴, 킷값, 핏대, 햇볕, 혓바늘
'ㄴ, ㅁ' 앞에서 'ㄴ' 덧남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모음 앞에서 'ㄴㄴ' 덧남	도리깻열, 뒷윷,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갯잇, 욧잇, 깻잎, 나뭇잎, 댓잎

시험 포인트

사이시옷은 '표기'이지 '소리'가 아니다. 사이시옷이 들어간 합성어의 발음(냇가는 [내:까] 또는 [낻:까], 나뭇잎은 [나문닙])과 표기 조건을 함께 묻는다.

37 사이시옷 ② 순우리말 + 한자어 — 전셋집, 찻잔, 제삿날, 예삿일

제30항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도 제30항 1과 같은 세 조건(된소리, 'ㄴ' 덧남, 'ㄴㄴ' 덧남)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두 말 중 하나만 순우리말이면 된다.

조건	예
뒷말 첫소리 → 된소리	귓병, 머릿방, 뱃병, 봇둑, 사잣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촛국, 콧병, 탯줄, 텃세, 핏기, 햇수, 횟가루, 횟배
'ㄴ, ㅁ' 앞에서 'ㄴ' 덧남	곗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모음 앞에서 'ㄴㄴ' 덧남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시험 포인트 '전셋집'(전세+집, 집이 순우리말)은 사이시옷을 적지만 '전세방'(傳貰房, 모두 한자어)은 적지 않는다. '찻잔'(차+잔, '차'를 고유어로 봄)과 '찻간'의 차이도 출제된다.

38 사이시옷 ③ 두 글자 한자어는 여섯 개만 —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제30항 3

두 음절로 된 한자어 가운데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여섯 단어에만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 밖의 한자어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구분	예
사이시옷 적는 한자어 6개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사이시옷 적지 않는 한자어	초점(焦點), 개수(個數), 대가(代價), 시가(市價), 전세방(傳貰房), 마구간(馬廐間), 소수점(小數點), 허점(虛點), 대구법(對句法), 치과(齒科), 화병(火病), 이점(利點)

시험 포인트 '초점'(○)·'촛점'(×), '개수'(○)·'갯수'(×), '횟수'(○)·'회수'(×)가 최빈출이다. 여섯 단어는 '곳·셋·숫·찻·툇·횟'으로 외워 둔다.

39 사이시옷 판정 네 조건 — 머리말, 인사말, 위층, 뒤쪽, 해님, 피자집은 왜 안 되나

제30항 종합

사이시옷을 적으려면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 합성어일 것(파생어 ×) ②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③ 순우리말이 하나 이상 들어 있을 것(한자어끼리 ×, 외래어 포함 ×) ④ 발음에서 된소리·'ㄴ'·'ㄴㄴ'이 덧날 것.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안 적는 이유	예
발음 변화 없음(④ 위반)	머리말[머리말], 인사말[인사말], 예사말[예:사말], 머리글, 꼬리말, 치마바지
뒷말이 된소리·거센소리로 시작(④ 무의미)	위쪽, 아래쪽, 뒤쪽, 위층, 아래층, 뒤풀이, 뒤꿈치, 배탈, 코털
파생어·외래어(① ③ 위반)	해님(해+님), 나무꾼(나무+꾼), 피자집, 핑크빛

안 적는 이유	예
한자어끼리(③ 위반)	전세방, 초점, 개수, 대가
모두 충족 → 적음	윗니, 윗목, 윗입술, 뒷일, 찻집, 횟집, 등굣길, 하굣길, 장맛비, 최댓값, 북엇국, 만둣국

시험 포인트 '머리말'과 '예삿일', '위층'과 '윗니', '해님'과 '햇빛'을 짝지어 조건을 적용하게 하는 문제가 전형적이다. '등굣길, 최댓값, 북엇국'은 어색해 보여도 모두 맞는 표기이다.

40 'ㅂ' 소리가 덧나는 말 — 멥쌀, 볍씨, 좁쌀, 햅쌀, 입때, 접때

제31항 1

두 말이 어울릴 때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쌀, 씨, 때' 등은 옛말에서 'ㅂ'으로 시작하는 말(뿔, 씨, 빼)이었기 때문에 합성어에서 그 흔적이 'ㅂ' 받침으로 남은 것이다.

맞는 표기	원래 결합	틀린 표기
댑싸리, 멥쌀, 볍씨, 입쌀, 좁쌀, 햅쌀	대+싸리, 메+쌀, 벼+씨, 이+쌀, 조+쌀, 해+쌀	댓싸리, 멧쌀, 벼씨, 좃쌀, 햇쌀
입때, 접때	이+때, 저+때	잇때, 젓때

시험 포인트 '햅쌀'(ㅂ)과 '햇과일·햇곡식·햇감자'(사이시옷)를 구별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쌀' 앞에서만 'ㅂ'이 덧난다.

41 'ㅎ' 소리가 덧나는 말과 '수-/숫-' — 머리카락, 살코기, 수탉, 암캐 / 숫양, 숫염소, 숫쥐

제31항 2 · 표준어 규정 제7항

두 말이 어울릴 때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옛말에서 'ㅎ' 종성을 가졌던 '머리, 살, 수, 암, 안'이 뒷말과 결합하면서 거센소리가 된 것이다. 표준어 규정은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를 '수-'로 통일하되, 거센소리가 굳어진 아홉 단어와 '숫-'으로 적는 세 단어를 예외로 둔다.

구분	예
'ㅎ' 덧남 → 거센소리	머리카락, 살코기, 안팎, 암캐, 암컷, 암탉, 수캐, 수컷, 수탉
거센소리로 굳어진 '수-' 9개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수평아리 (암캉아지, 암캐, 암컷 … 도 같음)
'숫-'으로 적는 3개	숫양, 숫염소, 숫쥐
그 밖은 모두 '수-'	수꿩,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 수벌, 수개미

시험 포인트 '숫양·숫염소·숫쥐' 세 개만 '숫-'이고, '수놈, 수소, 수꿩'은 '수-'이다. '수탉'(○)·'숫닭·수닭'(×), '안팎'(○)·'안밖'(×)도 자주 묻는다.

제 4 부

준말

제4장 제5절 준말

모음 축약 · 되/돼 · 띄/띠 · -잖-/-찮- · '하' 준말의 두 갈래

42 – 51

42	단어 끝 모음이 줄고 자음만 남는 준말 — 엊그저께, 갖고, 딛고
43	체언과 조사가 줄어든 말 — 그건, 그게, 난, 날, 뭘, 무에
44	'ㅏ, ㅕ' 뒤 '-아/-어'는 반드시 줄인다 — 가, 서, 켜, 펴 / 개어=개, 하여=해
45	'ㅗ, ㅜ' + '-아/-어' → 'ㅘ, ㅝ' / '되어' → '돼' (되·돼 구별법)
46	'ㅣ' + '-어' → 'ㅕ' — 가져, 견뎌, 다녀, 막혀, 버텨, 치여
47	'-이-'가 붙어 줄어든 말 — 뵈다, 띄다, 쐬다 / '띄다'와 '띠다'의 구별
48	'-이어'가 줄어든 두 가지 — 쌔어/싸여, 뵈어/보여, 쐬어/쓰여 (단, '띄어'만)
49	'-지 않-' → '-잖-', '-하지 않-' → '-찮-' — 적잖은, 만만찮다, 괜찮다
50	'하' 준말 ① 유성음 뒤 — 'ㅏ'만 줄고 'ㅎ'이 남아 거센소리: 간편케, 흔타, 무심코
51	'하' 준말 ② 안울림소리 뒤 — '하'가 통째로 탈락: 깨끗지, 생각건대, 익숙지, 섭섭지

42 단어 끝 모음이 줄고 자음만 남는 준말 — 엊그저께, 갖고, 딛고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어제그저께'에서 '제'의 모음 'ㅔ'가 줄고 'ㅈ'만 남아 앞 음절 받침이 되어 '엊그저께'가 된다.

본말	준말	틀린 표기
기러기야 / 어제그저께 / 어제저녁	기럭아 / 엊그저께 / 엊저녁	엇그저께, 엇저녁
가지고, 가지지 / 디디고, 디디지	갖고, 갖지 / 딛고, 딛지	갖어(×, '가져'로 적음), 딛어(×, '디뎌'로 적음)

> **시험 포인트** '갖고'는 되지만 '갖어'(×)는 안 되며 '가져'로 적는다. '딛고'는 되지만 '딛어'(×)는 안 되고 '디뎌'로 적는다. 자음 어미 앞에서만 준다는 점이 핵심이다.

43 체언과 조사가 줄어든 말 — 그건, 그게, 난, 날, 뭘, 무에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구어에서 흔히 쓰이는 형태를 표기로 인정한 것이다.

본말	준말
그것은 / 그것이 / 그것으로	그건 / 그게 / 그걸로
나는 / 나를 / 너는 / 너를	난 / 날 / 넌 / 널
무엇을 / 무엇이	무얼, 뭘 / 무에

시험 포인트 '그게'(그것이)와 '그건'(그것은)을 조사 종류와 연결해 묻는다. '뭘'은 '무엇을'의 준말이다.

44 'ㅏ, ㅕ' 뒤 '-아/-어'는 반드시 줄인다 — 가, 서, 켜, 펴 / 개어=개, 하여=해

제34항

모음 'ㅏ, ㅕ'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때는 반드시 준 대로 적는다('가아'처럼 적지 않음). 'ㅐ, ㅖ'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때는 준 대로 적을 수 있다(본말·준말 모두 허용). '하여'가 '해'로 줄 때도 준 대로 적을 수 있다.

구분	본말	준말
ㅏ, ㅕ 뒤 → 반드시 준말	가아, 가았다 / 나아, 나았다 / 타아 / 서어, 서었다 / 켜어 / 펴어, 펴었다	가, 갔다 / 나, 났다 / 타 / 서, 섰다 / 켜 / 펴, 폈다
ㅐ, ㅖ 뒤 → 둘 다 허용	개어, 개었다 / 내어 / 베어, 베었다 / 세어	개, 갰다 / 내 / 베, 벴다 / 세
'하여' → '해' 허용	하여, 하였다 / 더하여 / 흔하여	해, 했다 / 더해 / 흔해

시험 포인트 '학교에 가았다'(×), '불을 켜었다'(×)는 틀린 표기다. 'ㅏ, ㅕ' 뒤에서는 준말만 인정하고, 'ㅐ, ㅖ' 뒤에서는 본말과 준말을 모두 인정한다는 차이를 묻는다.

45 'ㅗ, ㅜ' + '-아/-어' → '과, 궈' / '되어' → '돼' (되·돼 구별법)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과/궈, 왔/웠'으로 될 때는 준 대로 적는다. '놓아'가 '놔'로 줄 때도 준 대로 적는다. '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ㅙ, 왰'으로 될 때도 준 대로 적는다. 따라서 '돼'는 언제나 '되어'의 준말이다.

구분	본말	준말
ㅗ + 아 → 과	꼬아, 꼬았다 / 보아, 보았다 / 쏘아 / 놓아	꽈, 꽜다 / 봐, 봤다 / 쏴 / 놔
ㅜ + 어 → 궈	두어, 두었다 / 쑤어 / 주어, 주었다	둬, 뒀다 / 쒀 / 줘, 줬다
ㅚ + 어 → ㅙ	괴어, 괴었다 / 되어, 되었다 / 뵈어 / 쇠어 / 쐬어	괘, 괬다 / 돼, 됐다 / 봬 / 쇄 / 쐐

시험 포인트 '되/돼' 판별법: 그 자리에 '하/해'를 넣어 '하'가 자연스러우면 '되', '해'가 자연스러우면 '돼'다. '안 돼'(안 해), '되고'(하고), '됐다'(했다), '뵙겠습니다·내일 봬요'. 문장 끝에는 '되'가 혼자 올 수 없으므로 '안 돼'가 맞다.

46 'ㅣ' + '-어' → 'ㅕ' — 가져, 견뎌, 다녀, 막혀, 버텨, 치여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어질 때는 준 대로 적는다. 피동·사동 접미사 '-이-, -히-'가 붙은 말에 '-어'가 결합할 때도 같다.

본말	준말	틀린 표기
가지어, 가지었다 / 견디어 / 다니어, 다니었다	가져, 가졌다 / 견뎌 / 다녀, 다녔다	갖어, 갖었다
막히어, 막히었다 / 버티어 / 치이어, 치이었다	막혀, 막혔다 / 버텨 / 치여, 치였다	막히었다(○ 본말), 치어(×)

시험 포인트 '차에 치여'(치이다+어)와 '차에 치어'(×)를 묻는다. '가져'는 '가지어'의 준말이므로 '갖어'(×)로 쓰지 않는다(제32항 참조).

47 '-이-'가 붙어 줄어든 말 — 뵈다, 띄다, 씌다 / '띄다'와 '띠다'의 구별

제37항

'ㅏ, ㅕ,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ㅖ, ㅚ, ㅟ, ㅢ'로 줄어질 때는 준 대로 적는다. '띄다'는 '뜨이다'의 준말로 '눈에 띄다, 띄어 쓰다'에 쓰고, '띠다'는 '띠를 띠다, 미소를 띠다, 임무를 띠다'처럼 '두르다·지니다'의 뜻으로 쓰는 별개 단어이다.

본말	준말
싸이다 / 펴이다 / 보이다	쌔다 / 폐다 / 뵈다
누이다 / 뜨이다 / 쓰이다	뉘다 / 띄다 / 씌다

시험 포인트 '눈에 띄는 변화'(뜨이다), '띄어쓰기'는 '띄', '미소를 띠다, 푸른빛을 띠다, 사명을 띠다'는 '띠'다. '띄다'와 '띠다'의 구별은 서술형·객관식 모두에서 빈출이다.

48 '-이어'가 줄어든 두 가지 — 쌔어/싸여, 뵈어/보여, 씌어/쓰여 (단, '띄어'만)

제38항

'ㅏ, ㅗ, ㅜ,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때는 준 대로 적는다. 이때 '-이-'가 앞 음절에 붙어 줄거나(쌔어) 뒤 음절에 붙어 줄거나(싸여)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뜨이어'는 '띄어'로만 줄고 '뜨여'(×)는 쓰지 않는다.

본말	준말 ①(앞에 붙음)	준말 ②(뒤에 붙음)
싸이어 / 보이어 / 쏘이어	쌔어 / 뵈어 / 쐬어	싸여 / 보여 / 쏘여
누이어 / 쓰이어 / 트이어	뉘어 / 씌어 / 틔어	누여 / 쓰여 / 트여
뜨이어	띄어	뜨여(×)

시험 포인트 '씌어'와 '쓰여'는 둘 다 맞지만 '씌여'(×)는 틀리다. 두 준말 방식을 한 단어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49 '-지 않-' → '-잖-', '-하지 않-' → '-찮-' — 적잖은, 만만찮다, 괜찮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때와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때는 준 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잔, 찬'으로 적지 않고 '않'의 'ㅎ'을 살려 '잖, 찮'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틀린 표기
그렇지 않은 / 적지 않은 / 남부럽지 않다	그렇잖은 / 적잖은 / 남부럽잖다	그렇잔은, 적잔은
만만하지 않다 / 변변하지 않다 / 시원하지 않다	만만찮다 / 변변찮다 / 시원찮다	만만찬다, 변변챦다
굳어진 단어	괜찮다(공연하지 않다), 귀찮다(귀하지 않다), 점잖다(젊지 않다), 하찮다	괜챦다, 귀챦다

시험 포인트 '괜찮다'(○)·'괜챦다'(×), '귀찮다'(○)·'귀챦다'(×)가 가장 많이 틀린다. '찮'에는 'ㅏ'가 들어가지 않는다.

50 '하' 준말 ① 유성음 뒤 — 'ㅏ'만 줄고 'ㅎ'이 남아 거센소리: 간편케, 흔타, 무심코

제40항 · 붙임 1·3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때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하' 앞의 받침이 울림소리(모음, ㄴ, ㄹ, ㅁ, ㅇ)일 때 일어난다.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않다, 그렇다' 등은 준 대로 적으며, 어원적으로 '-하-'가 줄어 굳어진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구분	본말	준말
모음·ㄴ·ㄹ·ㅁ·ㅇ 뒤 → 거센소리	간편하게 / 연구하도록 / 가하다 / 다정하다 / 정결하다 / 흔하다 / 무심하지 / 당하지	간편케 / 연구토록 / 가타 / 다정타 / 정결타 / 흔타 / 무심치 / 당치
'ㅎ'이 어간 끝소리로 굳어짐	아니하다, 아니하고 / 그러하다 / 아무러하다 / 어떠하다 / 이러하다	않다, 않고 / 그렇다 / 아무렇다 / 어떻다 / 이렇다
굳어진 부사 → 소리대로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결단하고 … 에서 온 말이나 소리대로 적음)

시험 포인트 '아무튼'(○)·'아뭏든'(×), '하마터면'(○)·'하마트면'(×), '요컨대'(○)·'요컨데'(×)는 부사로 굳어진 표기를 묻는 단골 문제이다.

51 '하' 준말 ② 안울림소리 뒤 — '하'가 통째로 탈락: 깨끗지, 생각건대, 익숙지, 섭섭지

제40항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 앞의 받침이 안울림소리(ㄱ, ㅂ, ㅅ 등)일 때는 '하'가 아주 줄어, 'ㅎ'이 남지 않으므로 거센소리로 적지 않는다. '깨끗하지'는 'ㅅ' 뒤이므로 '깨끗지'가 되고, '깨끗치'(×)가 되지 않는다. 앞 받침이 울림소리인지 안울림소리인지가 '-치/-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본말	준말	틀린 표기
거북하지 / 생각하건대 / 생각하다 못해	거북지 / 생각건대 / 생각다 못해	거북치, 생각컨대
깨끗하지 않다 / 넉넉하지 않다 / 못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 넉넉지 않다 / 못지않다	깨끗치, 넉넉치, 못치않다
섭섭하지 않다 / 익숙하지 않다 / 답답하지	섭섭지 않다 / 익숙지 않다 / 답답지	섭섭치, 익숙치, 답답치

시험 포인트 울림소리 뒤 '-치'(무심치, 당치, 간편치)와 안울림소리 뒤 '-지'(익숙지, 깨끗지, 생각건대)를 짝지어 묻는 문제가 문법 시험의 고정 출제 유형이다. '서슴지 않다'(서슴다, '하'가 없음)와 '삼가지'(삼가다)도 '-지'다.

제 5 부

띄어쓰기

제5장 띄어쓰기

조사 · 의존 명사 · 단위 명사 · 보조 용언 · 고유 명사 · 자주 묻는 띄어쓰기

52 – 66

52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이나마, 어디까지나
53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아는 것, 할 수, 먹을 만큼, 떠난 지
54	단위 명사는 띄어 쓴다 — 한 개, 열 살, 두 켤레 / 제일과, 삼학년, 1446년 10월 9일
55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56	두 말을 잇거나 열거하는 말 —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걸상 등
57	단음절 단어가 이어질 때 붙여 쓸 수 있다 —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58	보조 용언은 띄어 쓰되 붙여 쓸 수 있다 — 꺼져 간다/꺼져간다, 올 듯하다/올듯하다
59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호칭·관직명은 띄어 쓴다 — 김양수,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60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는 단위별로 띄되 붙여 쓸 수 있다 — 한국 대학교/한국대학교, 만성 골수성 백혈병
61	'만큼·대로·뿐' — 체언 뒤면 조사(붙임), 관형어 뒤면 의존 명사(띄움)
62	'만·간·중·들·차' — 의존 명사일 때와 조사·접미사일 때
63	'못하다·안되다·잘하다' — 한 단어일 때와 구일 때
64	'한번·이번·한잔·한눈' — 뜻이 굳어지면 붙이고, 수량이면 띄운다
65	'-째·채·체' — 접미사 '-째'는 붙이고, 의존 명사 '채·체'는 띄운다
66	'-ㄹ수록··ㄹ지라도··ㄹ뿐더러··ㄴ걸··ㄹ걸··ㄹ게' — 어미는 한 덩어리로 붙인다

52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이나마, 어디까지나

제41항

조사는 독립성이 없는 단어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여러 조사가 겹쳐 쓰이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책이다, 책입니다'처럼 붙여 쓴다.

구분	예
단일 조사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처럼, 꽃이다, 꽃입니다
조사가 겹침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어미·부사 뒤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가고요

시험 포인트 '밖에'는 '너밖에 없다'(조사, 붙임)와 '문 밖에 서다'(명사+조사, 띄움)로 갈린다. 부정어와 호응하면 조사 '밖에'다.

53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아는 것, 할 수, 먹을 만큼, 떠난 지

제42항

의존 명사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지만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같은 형태가 어미나 조사로 쓰일 때는 붙여 쓰므로, 앞말이 관형어(-ㄴ/-ㄹ)이고 그 자리가 명사 자리이면 의존 명사로 보아 띄어 쓴다.

의존 명사(띄움)	어미·조사(붙임)
떠난 지 오래다(시간의 경과)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어미 '-ㄴ지')
갈 데가 없다 / 아픈 데 먹는 약(장소·경우)	날씨가 좋은데 나가자(어미 '-ㄴ데')
뜻한 바를 알겠다	서류를 검토한바 문제가 없었다(어미 '-ㄴ바')
아는 것이 힘이다 / 할 수 있다 / 아는 이를 만났다	—
비가 올 듯하다(의존 명사+하다)	비 오듯 땀이 흐른다(어미 '-듯')

시험 포인트 '지'는 '헤어진 지 3년'(기간, 띄움)과 '올지 모르겠다'(추측, 붙임)로 구별한다. '데' 역시 '쉴 데'(장소)만 띄운다. 띄어쓰기 문제의 절반이 이 항에서 나온다.

54 단위 명사는 띄어 쓴다 — 한 개, 열 살, 두 켤레 / 제일과, 삼학년, 1446년 10월 9일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는 접두사이므로 '제1'까지는 언제나 붙여 쓴다.

구분	예
원칙(띄움)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순서 → 붙임 허용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원칙: 두 시 삼십 분 오 초, 제일 과, 삼 학년, 육 층)
아라비아 숫자 뒤 → 붙임 허용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시험 포인트 '한 개'는 반드시 띄우지만 '10개'는 붙일 수 있다. '제1 과'와 '제1과' 모두 가능하나 '제 1과'(×)처럼 '제'를 띄우면 틀린다.

55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제44항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우리말 수 체계가 '만, 억, 조'로 커지는 구조이므로 네 자리씩 끊는 것이 읽기에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아라비아 숫자와 섞어 쓸 때도 같다.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팔 / 십 이억 삼천 사백 오십 육만 …
12억 3456만 7898	12억3456만7898

시험 포인트 '만' 단위 띄어쓰기는 간단하지만 '천' 단위로 띄운 오답(삼천 사백)을 끼워 넣어 묻는다.

56 두 말을 잇거나 열거하는 말 —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걸상 등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겸, 내지, 대, 및, 등, 등등, 등속, 등지'는 띄어 쓴다. 의존 명사 또는 부사로 처리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단어	예
겸 / 내지 / 대 / 및	국장 겸 과장 / 열 내지 스물 / 청군 대 백군 / 이사장 및 이사들
등 / 등등 / 등속 / 등지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사과, 배, 귤 등등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시험 포인트 '등'을 앞말에 붙여 쓴 '사과등'(×)이 흔한 오답이다. '대(對)'는 '한국 대 일본'처럼 띄우되 '대일본 수출'의 접두사 '대(對)-'는 붙인다.

57 단음절 단어가 이어질 때 붙여 쓸 수 있다 —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원칙은 띄어 쓰는 것이지만, 한 글자짜리 단어가 줄지어 나오면 오히려 읽기 어렵기 때문에 의미 단위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원칙	허용
좀 더 큰 것 / 이 말 저 말 / 한 잎 두 잎	좀더 큰것 / 이말 저말 / 한잎 두잎

시험 포인트 허용은 어디까지나 '단음절이 연이어 올 때'에 한한다. '좀더 큰 것'처럼 일부만 붙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좀더큰것'처럼 의미 단위를 무시하고 모두 붙이면 안 된다.

58 보조 용언은 띄어 쓰되 붙여 쓸 수 있다 — 꺼져 간다/꺼져간다, 올 듯하다/올듯하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는 ① 본용언이 '-아/-어'로 연결될 때, ② '의존 명사 + 하다/싶다'로 된 보조 용언일 때이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이거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띄어 쓴다.

구분	예
'-아/-어' + 보조 용언 → 붙임 허용	불이 꺼져 간다/꺼져간다, 막아 낸다/막아낸다, 도와 드린다/도와드린다, 깨뜨려 버렸다/깨뜨려버렸다
의존 명사 + 하다/싶다 → 붙임 허용	올 듯하다/올듯하다, 할 만하다/할만하다, 될 법하다/될법하다, 올 성싶다/올성싶다, 아는 척한다/아는척한다
반드시 띄움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조사 개입), 책을 읽어도 보고(조사 개입), 덤벼들어 보아라(합성 용언), 다시없을 듯하다,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붙임 허용 없음('-고, -게, -지' 연결)	먹고 있다(먹고있다 ×), 가게 하다, 먹지 않다, 읽고 싶다

시험 포인트 '먹고 있다'는 '-고' 연결이므로 붙여 쓸 수 없다. '먹어 보다'는 붙여 쓸 수 있다. 연결 어미가 '-아/-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뻐지다, 좋아하다'처럼 '-아/-어 지다·하다'는 항상 붙여 쓴다.

59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호칭·관직명은 띄어 쓴다 — 김양수,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두 글자 성)는 띄어 쓸 수 있다.

구분	예
성+이름, 성+호 → 붙임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이순신, 정약용
호칭·관직명 → 띄움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김 과장, 이 선생님
두 글자 성 → 띄움 허용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황보 지봉

시험 포인트 '김씨'(×)·'김 씨'(○, 호칭), 단 '김씨 문중'처럼 성씨 자체를 가리킬 때는 접미사 '-씨'로 보아 붙인다. '선생님, 박사, 장군'은 반드시 띄운다.

60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는 단위별로 띄되 붙여 쓸 수 있다 — 한국 대학교/한국대학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제49항 · 제50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고,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기관·단체 이름이나 전문 용어가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붙여 쓰기를 허용한 것이다.

구분	원칙	허용
고유 명사(제49항)	대한 중학교 /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대한중학교 /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전문 용어(제50항)	만성 골수성 백혈병 / 중거리 탄도 유도탄	만성골수성백혈병 / 중거리탄도유도탄

시험 포인트 '단위별'이란 '한국대학교 / 사범대학'처럼 의미 단위를 말한다. '한국대 학교사범 대학'처럼 단위를 깨뜨린 붙여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61 '만큼·대로·뿐' — 체언 뒤면 조사(붙임), 관형어 뒤면 의존 명사(띄움)

제41항·제42항 응용

'만큼, 대로, 뿐'은 체언 뒤에 오면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관형사형 어미(-ㄴ/-ㄹ) 뒤에 오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같은 형태가 품사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대표 사례이다.

단어	조사(체언 뒤, 붙임)	의존 명사(관형어 뒤, 띄움)
만큼	너만큼 잘한다 / 노력만큼 얻는다	먹을 만큼 먹어라 / 노력한 만큼 얻는다
대로	나는 나대로 간다 / 법대로 해라	본 대로 말해라 / 시키는 대로 해라
뿐	너뿐이다 / 둘뿐이다	웃을 뿐이다 / 들었을 뿐이다

시험 포인트 앞말이 명사(너, 법, 둘)이면 붙이고, 앞말이 '-ㄴ/-ㄹ'로 끝나는 용언(본, 먹을, 웃을)이면 띄운다. 이 규칙 하나로 세 단어가 모두 해결된다.

62 '만·간·중·들·차' — 의존 명사일 때와 조사·접미사일 때

제41항·제42항 응용

'만, 간, 중, 들, 차'는 쓰임에 따라 의존 명사(띄움)가 되기도 하고 조사·접미사(붙임)가 되기도 한다. 뜻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은 시간의 경과이면 의존 명사, 한정이면 조사이다. '간'은 사이·관계이면 의존 명사, 기간·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면 붙인다.

단어	띄움(의존 명사)	붙임(조사·접미사)
만	사흘 만에 돌아왔다(경과) / 할 만하다	너만 와라(한정) / 셋만 남았다
간	서울과 부산 간 / 부모 자식 간	삼 년간, 이틀간(기간) / 외양간, 대장간(장소)
중	회의 중 / 수업 중 / 임신 중	은연중, 무의식중, 그중, 부재중(합성어)
들	쌀, 보리, 콩 들을 심었다(열거)	사람들, 학생들(복수 접미사)
차	고향에 갔던 차에 만났다(기회)	연수차 방문했다 / 사업차 들렀다(목적)

시험 포인트 '십 년 만에'(경과, 띄움)와 '십 년만 기다려'(한정, 붙임)의 대조가 단골이다. '부재중, 그중'은 한 단어로 굳어져 붙여 쓴다.

63 '못하다·안되다·잘하다' — 한 단어일 때와 구일 때

사전 등재 합성어

'못하다, 안되다, 잘하다, 잘되다, 못되다'는 사전에 오른 한 단어이지만, '못 하다, 안 되다, 잘 하다'처럼 부사와 용언이 각각 제 뜻을 유지하는 구(句)로도 쓰인다. 한 단어로 굳어진 뜻(능력·수준·형편)이면 붙이고, 단순 부정·단순 수식이면 띄운다.

한 단어(붙임)	구(띄움)
노래를 못한다(능력이 부족) / 공부를 못한다	숙제를 못 했다(하지 않았다) / 아파서 못 갔다
안되다: 일이 안된다(형편) / 안됐다(가엾다) / 안되어 보인다	안 되다: 가면 안 된다(금지) / 되지 않는다
잘하다: 노래를 잘한다(능숙) / 잘되다: 일이 잘되다	잘 하다: 손을 잘 씻어라(제대로)
못되다: 못된 짓 / 못되게 굴다(성질)	못 되다: 의사가 못 되었다

시험 포인트 '못하다'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일 때만 붙인다. '밥을 못 먹었다'는 부정이므로 띄운다. '안 돼'(금지)는 반드시 띄운다.

64 '한번·이번·한잔·한눈' — 뜻이 굳어지면 붙이고, 수량이면 띄운다

사전 등재 합성어

'한번, 한잔, 한눈, 한마디, 한길'은 '어떤 일을 시험 삼아·기회·강조' 등 굳어진 뜻으로 쓰이면 한 단어로 붙여 쓰고, '1회, 1잔, 한쪽 눈'처럼 수량·횟수를 셀 때는 '한 번, 한 잔, 한 눈'으로 띄어 쓴다.

한 단어(붙임)	수 관형사+명사(띄움)
한번 해 보자(시험 삼아) / 한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 / 춤 한번 잘 춘다(강조)	한 번, 두 번 세어 보았다 / 하루에 한 번만

한 단어(붙임)	수 관형사+명사(띄움)
한잔하자(가볍게 술을 마심) / 한눈팔다 / 한마디 하다 / 이번·저번·요번	커피 한 잔 주세요 / 한 눈을 감다 / 한 마디(마디 하나)

시험 포인트 '한 번'인지 '한번'인지는 '두 번'으로 바꿀 수 있는지로 가린다. 바꿀 수 있으면 횟수이므로 띄우고, 어색하면 붙인다.

65 '-째·채·체' — 접미사 '-째'는 붙이고, 의존 명사 '채·체'는 띄운다

제42항 응용

'-째'는 '그대로·전부'나 '차례'를 뜻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를 뜻하는 의존 명사, '체'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척'은 '체'와 같은 뜻이다.

형태	품사·띄어쓰기	예
-째	접미사(붙임)	통째로, 뿌리째, 껍질째 먹다 / 사흘째, 두 번째, 세 그릇째
채	의존 명사(띄움)	옷을 입은 채 잠들다 / 산 채로 잡다 / 눈을 뜬 채
체(=척)	의존 명사(띄움)	아는 체하다 / 못 본 체했다 / 잘난 체하다(체하다 붙임 허용)

시험 포인트 '껍질째'(접미사)와 '껍질 채'(×), '산 채로'(○)와 '산채로'(×)의 대조가 빈출이다. '체하다/척하다'는 제47항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66 '-ㄹ수록·-ㄹ지라도·-ㄹ뿐더러·-ㄴ걸·-ㄹ걸·-ㄹ게' — 어미는 한 덩어리로 붙인다

제42항 응용 · 제53항

'-(으)ㄹ수록, -(으)ㄹ지라도, -(으)ㄹ뿐더러, -(으)ㄹ망정, -(으)ㄹ지언정, -(으)ㄴ걸, -(으)ㄹ걸, -(으)ㄹ게'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수록, 뿐, 걸, 게' 부분을 의존 명사로 착각해 띄우면 틀린다. 다만 '걸'이 '것을'의 준말로 쓰여 명사 자리를 차지하면 띄어 쓴다.

어미·조사(붙임)	의존 명사 '것'의 준말(띄움)
갈수록 태산이다 / 비가 올지라도 간다 / 춥기는커녕 덥다	—
예쁠뿐더러 착하다 / 굶을망정 빌지 않는다 / 죽을지언정	—
벌써 갔을걸(추측) / 참 예쁜걸(감탄) / 내가 할게(약속)	그런 걸 왜 묻니(그런 것을) / 먹을 걸 챙겨라(먹을 것을)

시험 포인트 '할게'(○)·'할께'(×), '갔을걸'(○)·'갔을껄'(×)처럼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고 붙인다(제53항). '그런 걸'은 '그런 것을'로 풀리면 띄운다.

제 6 부

그 밖의 것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제56항)

'-이/-히' · 한자어 속음 · 된소리 어미 · 된소리 접미사 · 던/든

67 – 74

67	'-이'로 적는 부사 — 깨끗이, 가까이, 겹겹이, 곰곰이, 많이, 일일이
68	'-히'로 적는 부사 — 급히, 꾸준히, 정확히 / '-이·-히' 둘 다 나는 말: 솔직히, 조용히, 열심히
69	한자어 속음 표기 — 희로애락, 곤란, 유월, 시월, 초파일, 허락, 의논
70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ㄹ걸, -ㄹ게, -ㄹ수록, -ㄹ지 / 단, 의문형은 된소리: -ㄹ까, -ㄹ꼬, -ㅂ니까
71	된소리로 적는 접미사 — -꾼, -깔, -때기, -꿈치
72	'-배기/-빼기'와 '-적다/-쩍다' — 뚝배기·곱빼기, 맛적다·멋쩍다
73	두 가지로 쓰이던 말은 한 가지로 — 맞추다(마추다 ×), 뻗치다(뻐치다 ×)
74	'-더라·-던'(과거 회상)과 '-든지'(선택) — 춥더라, 깊던 물 / 배든지 사과든지

67 '-이'로 적는 부사 — 깨끗이, 가까이, 겹겹이, 곰곰이, 많이, 일일이

제51항 ①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는다. 해설에서는 '-이'로 적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겹쳐 쓰인 명사 뒤 ② 'ㅅ' 받침 뒤 ③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④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⑤ 부사 뒤.

환경	예
① **겹쳐 쓰인 명사 뒤**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나날이, 다달이, 샅샅이, 알알이
② **'ㅅ' 받침 뒤**	깨끗이, 가붓이, 나붓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지긋이
③ **'ㅂ' 불규칙 어간 뒤**	가까이, 가벼이, 괴로이, 기꺼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새로이, 쉬이, 외로이, 즐거이
④ **'-하다' 안 붙는 어간 뒤**	같이, 굳이, 길이, 깊이, 높이, 많이, 실없이, 적이, 헛되이
⑤ **부사 뒤**	곰곰이, 더욱이, 생급스레,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 **시험 포인트** '깨끗이'(ㅅ 받침 → 이)와 '꼼꼼히'(ㅁ 받침, -하다 어근 → 히)의 대조가 가장 많이 나온다. 'ㅅ' 받침 뒤는 '-하다'가 붙어도 '-이'다(따뜻이, 의젓이).

68 '-히'로 적는 부사 — 급히, 꾸준히, 정확히 / '-이·-히' 둘 다 나는 말: 솔직히, 조용히, 열심히

제51항 ②

부사의 끝음절이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하다'가 붙는 어근 뒤(단, 'ㅅ' 받침 제외)는 '-히'로 적고,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해 준 부사(익숙히 → 익히, 특별히 → 특히)도 '-히'로 적는다.

환경	예
[히]로만 소리 남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환경	예
[이]·[히] 둘 다 → '히'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하다' 어근 + 히가 준 말	익히(익숙히), 특히(특별히)

시험 포인트 판별 요령: '-하다'를 붙여 말이 되고 받침이 'ㅅ'이 아니면 '-히'(꼼꼼하다 → 꼼꼼히, 솔직하다 → 솔직히). '-하다'가 안 붙으면 '-이'(같이, 많이). 'ㅅ' 받침이면 무조건 '-이'(깨끗이).

69 한자어 속음 표기 — 희로애락, 곤란, 유월, 시월, 초파일, 허락, 의논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俗音, 관습적으로 변한 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같은 한자라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굳어진 대로 적는 것이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시험 포인트 '희로애락'(○)·'희노애락'(×), '곤란'(○)·'곤난'(×), '유월·시월'(○)·'육월·십월'(×), '허락'(○)·'허낙'(×), '의논'(○)·'의론'(×)은 속음 표기의 5대 빈출이다.

70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ㄹ걸, -ㄹ게, -ㄹ수록, -ㄹ지 / 단, 의문형은 된소리: -ㄹ까, -ㄹ꼬, -ㅂ니까

제53항

'-(으)ㄹ' 뒤에 오는 어미는 [께, 껄, 쑤록]처럼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다. 'ㄹ'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으)ㄹ까, -(으)ㄹ꼬, -(스)ㅂ니까, -(으)리까, -(으)ㄹ쏘냐'는 된소리로 적는다.

구분	예
예사소리로 적는 어미	-(으)ㄹ거나, -(으)ㄹ걸, -(으)ㄹ게, -(으)ㄹ세, -(으)ㄹ세라, -(으)ㄹ수록, -(으)ㄹ시, -(으)ㄹ지, -(으)ㄹ지니라, -(으)ㄹ지라도, -(으)ㄹ지어다, -(으)ㄹ지언정, -(으)ㄹ진대, -(으)ㄹ진저, -올시다
된소리로 적는 의문형 어미	-(으)ㄹ까? -(으)ㄹ꼬? -(스)ㅂ니까? -(으)리까? -(으)ㄹ쏘냐?

시험 포인트 '내가 할게'(○)·'할께'(×), '그럴걸'(○)·'그럴껄'(×), '갈수록'(○)·'갈쑤록'(×)이 빈출이고, 의문형 '할까, 갈까'는 된소리가 맞다는 점이 함정으로 나온다.

71 된소리로 적는 접미사 — -꾼, -깔, -때기, -꿈치

제54항 ①

접미사 '-꾼, -깔, -때기, -꿈치'는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는다. 한자 '군(軍)'에서 왔다고 보아 '-군'으로 적던 것을 1988년 개정에서 된소리 표기로 통일했다.

접미사	맞는 표기	틀린 표기
-꾼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나무꾼, 사기꾼, 구경꾼	심부름군, 일군, 나무군
-깔	때깔, 빛깔, 성깔	때갈, 빛갈, 성갈
-때기	귀때기, 볼때기, 판자때기	귀대기, 볼대기, 판자대기
-꿈치	뒤꿈치, 팔꿈치	뒤굼치, 팔굼치

시험 포인트 '나무꾼'(○)·'나뭇군·나무군'(×), '일꾼'(○)·'일군'(×)을 묻는다. '-꾼'은 접미사이므로 사이시옷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72 '-배기/-빼기'와 '-적다/-쩍다' — 뚝배기·곱빼기, 맛적다·멋쩍다

제54항 ②

'-배기/-빼기'는 [배기]로 발음되면 '배기'로, 한 형태소 안에서 'ㄱ, ㅂ' 받침 뒤에 [빼기]로 발음되면 '배기'로,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면 '빼기'로 적는다. '-적다/-쩍다'는 [적다]로 발음되거나 '적다[少]'의 뜻이 살아 있으면 '적다'로, '적다'의 뜻이 없이 [쩍다]로 발음되면 '쩍다'로 적는다.

구분	예
[배기]로 발음 → 배기	귀퉁배기, 나이배기, 대짜배기, 육자배기, 주정배기, 혀짤배기
'ㄱ, ㅂ' 받침 뒤 [빼기] → 배기	뚝배기, 학배기
다른 형태소 뒤 [빼기] → 빼기	고들빼기, 그루빼기, 대갈빼기, 머리빼기, 곱빼기, 밥빼기, 악착빼기, 억척빼기, 코빼기, 이마빼기
[적다]로 발음되거나 '적다[少]'의 뜻이 있음 → 적다	맛적다(재미가 적다), 괘다리적다, 괘달머리적다, 딱적다, 열통적다
'적다' 뜻 없음 → 쩍다	맥쩍다, 멋쩍다, 객쩍다, 겸연쩍다, 해망쩍다, 행망쩍다

시험 포인트 '곱빼기'(○)·'곱배기'(×), '뚝배기'(○)·'뚝빼기'(×), '멋쩍다'(○)·'멋적다'(×), '겸연쩍다'(○)·'겸연적다'(×)가 대표 출제 쌍이다.

73 두 가지로 쓰이던 말은 한 가지로 — 맞추다(마추다 ×), 뻗치다(뻐치다 ×)

제55항

뜻에 따라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말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 적는다. 예전에는 '맞추다(對)'와 '마추다(주문)'를 구별했으나 모두 '맞추다'로, '뻗치다'와 '뻐치다'를 구별했으나 모두 '뻗치다'로 적는다.

통일된 표기	예	버린 표기
맞추다	입을 맞춘다 / 양복을 맞춘다 / 답을 맞추어 본다 / 줄을 맞추다	마추다
뻗치다	다리를 뻗친다 / 세력이 남으로 뻗친다	뻐치다

시험 포인트 '맞추다'(서로 대어 보다, 주문하다)와 '맞히다'(정답을 맞히다, 과녁을 맞히다)는 뜻이 다른 별개 단어다. '정답을 맞추다'(×)·'정답을 맞히다'(○)가 최빈출이다.

74 '-더라··던'(과거 회상)과 '-든지'(선택) — 춥더라, 깊던 물 / 배든지 사과든지

제56항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고,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발음이 비슷해 혼동하지만 '던'은 과거 회상, '든'은 선택·무관함으로 기능이 전혀 다르다.

구분	예
'-더라, -던'(과거 회상)	지난겨울은 몹시 춥더라. / 깊던 물이 얕아졌다. / 그렇게 좋던가? / 그 사람 말 잘하던데! /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든지'(선택·무관)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험 포인트 '얼마나 놀랐던지'(회상)와 '놀라든지 말든지'(선택)처럼 같은 문장 안에서 둘을 나란히 묻는다. '-든지'는 '-든'으로 줄일 수 있다(가든 오든).

제 7 부

구별해 적는 말 · 빈출 표준어

제57항 · 표준어 규정

뜻이 다른 비슷한 말 · 웃-/윗- · -장이/-쟁이 · -데/-대 · -이에요/-예요 · 안/않 · 왠지/웬

75 – 100

75	가름 / 갈음
76	거름 / 걸음 · 노름 / 놀음 · 목거리 / 목걸이
77	아름 / 알음 / 앎 · 어름 / 얼음
78	거치다 / 걷히다 · 걷잡다 / 겉잡다
79	그러므로 / 그럼으로(써) · -(으)므로 / (-ㅁ, -음)으로(써)
80	느리다 / 늘이다 / 늘리다
81	다리다 / 달이다 · 저리다 / 절이다 · 조리다 / 졸이다 · 주리다 / 줄이다
82	다치다 / 닫히다 / 닫치다 · 마치다 / 맞히다 · 부딪치다 / 부딪히다
83	바치다 / 받치다 / 받히다 / 밭치다
84	반드시 / 반듯이 · 이따가 / 있다가
85	부치다 / 붙이다
86	시키다 / 식히다 · 안치다 / 앉히다
87	하노라고 / 하느라고 · -느니보다 / -는 이보다 · -(으)리만큼 / -(으)ㄹ 이만큼
88	-(으)러(목적) / -(으)려(의도)
89	-(으)로서(자격) / -(으)로써(수단)
90	'웃-'과 '윗-' — 아래·위 대립이 있으면 '윗-', 없으면 '웃-', 거센소리·된소리 앞은 '위-'
91	'-장이'와 '-쟁이' — 기술자는 '-장이', 성질·습관은 '-쟁이'
92	설레다·바라다·삼가다·개다 — 불필요한 '이'를 넣지 않는다
93	'-데'와 '-대' — 직접 경험은 '-데', 남의 말 전달은 '-대'
94	'-이에요 / -예요 / -에요' — 받침 있으면 '-이에요', 없으면 '-예요', 아니에요
95	'안'과 '않' — '안'은 부사(아니), '않'은 용언(아니하-)
96	'왠지'와 '웬' — '왠지'는 '왜인지', 그 밖은 모두 '웬'
97	오랜만·오랫동안·금세·역할·어떡해 — 자주 틀리는 단일 표기
98	'-던지'와 '-든지', '-ㄹ는지'와 '-ㄹ런지' — 자주 섞이는 어미 네 가지
99	날아·날라 · 빌다·빌리다 · 썩이다·썩히다 — 모양이 비슷한 용언의 뜻 구별
100	'-읍니다'는 없다 — 있습니다·없습니다, 그리고 있음·없음

75 가름 / 갈음

제57항

'가름'은 '가르다(나누다)'의 명사형이고, '갈음'은 '갈다(바꾸다)'의 명사형이다. 어간이 다르므로 받침 모양이 달라진다. 제19항의 원리(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음)가 적용된 것이다.

단어	뜻	예
가름	나누다, 구별하다	둘로 가름 / 승부를 가름하는 한 판
갈음	대신하다, 바꾸다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 인사말로 갈음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사말에 갈음한다'(○)·'가름한다'(×). '대신한다'로 바꿀 수 있으면 '갈음'이다.

76 거름 / 걸음 · 노름 / 놀음 · 목거리 / 목걸이

제57항 · 제19항

'걸음(걷다+음), 놀음(놀다+음), 목걸이(걸다+이)'는 어간의 뜻이 살아 있어 원형을 밝혀 적고, '거름(비료), 노름(도박), 목거리(목병)'는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져 소리대로 적는다. 뜻이 어간과 이어지는지가 기준이다.

원형 밝힘(뜻 유지)	소리대로(뜻 멀어짐)
걸음: 빠른 걸음 / 걸음마	거름: 풀을 썩힌 거름(비료)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 윷놀음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도박)
목걸이: 금목걸이, 은목걸이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목이 붓는 병)

시험 포인트 '노름'은 '놀다'에서 왔지만 뜻이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제19항 '다만' 조항의 대표 예로 출제된다.

77 아름 / 알음 / 앎 · 어름 / 얼음

제57항 · 제19항

'알음(알다+음), 앎(알다+ㅁ), 얼음(얼다+음)'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고, '아름(두 팔을 벌린 길이), 어름(경계)'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명사형 '-음'과 '-ㅁ'은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단어	뜻	예
아름	두 팔을 둘러 안은 둘레	세 아름 되는 둘레 / 꽃 한 아름
알음	아는 것, 친분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 알음알음으로 구했다
앎	아는 일, 지식	앎이 힘이다
어름	두 사물의 경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 눈두덩과 눈썹 어름
얼음	물이 언 것	얼음이 얼었다 / 얼음물

시험 포인트 '앎'은 받침 없는 어간 '알-'에 'ㅁ'이 붙은 것이 아니라, 'ㄹ' 받침 어간에 '-ㅁ'이 붙어 'ㄺ' 겹받침이 된 것이다. '삶, 만듦, 베풂'도 같은 원리다.

78 거치다 / 걷히다 · 걷잡다 / 겉잡다

제57항

'거치다'는 '지나가다', '걷히다'는 '걷다[收]'의 피동으로 '거두어지다'의 뜻이다. '걷잡다'는 '쏠리는 것을 붙들어 바로잡다', '겉잡다'는 '겉으로 어림잡다'의 뜻이다. 각각 어원이 다르므로 받침이 다르다.

단어	뜻	예
거치다	지나다, 경유하다	영월을 거쳐 왔다 / 여러 손을 거친 물건
걷히다	거두어지다('걷다'의 피동)	외상값이 잘 걷힌다 / 안개가 걷혔다
걷잡다	붙들어 바로잡다	걷잡을 수 없는 상태 /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
겉잡다	겉으로 어림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 겉잡아 백 명

시험 포인트 '걷잡을 수 없다'(○)·'겉잡을 수 없다'(×)는 가장 많이 틀리는 표기 중 하나다. '안개가 걷히다'는 '걷다'의 피동이므로 'ㄷ' 받침이다.

79 그러므로 / 그럼으로(써) · -(으)므로 / (-ㅁ, -음)으로(써)

제57항

'그러므로, -(으)므로'는 이유·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이고, '그럼으로(써), -ㅁ으로(써)'는 명사형 '-ㅁ' 뒤에 수단·방법의 조사 '으로(써)'가 붙은 것이다. 어미 '-므로'에는 '써'를 붙일 수 없고, 조사 '으로'에는 '써'를 붙일 수 있다.

형태	기능	예
그러므로(=그러니까)	이유의 접속 부사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	수단('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으)므로	이유의 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 비가 오므로 가지 않았다.
(-ㅁ, -음)으로(써)	명사형+수단의 조사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답했다.

시험 포인트 판별법: '써'를 붙여 자연스러우면 '-ㅁ으로(써)', 어색하면 '-므로'다. '비가 오므로써'(×)는 틀리고 '비가 오므로'(○)가 맞다.

80 느리다 / 늘이다 / 늘리다

제57항

'느리다'는 속도가 더딘 것, '늘이다'는 길이를 본래보다 길게 하는 것, '늘리다'는 수량·크기·시간 등을 많아지게 하는 것이다. '늘이다'는 길이에만, '늘리다'는 그 밖의 모든 것에 쓴다.

단어	뜻	예
느리다	속도가 더디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 걸음이 느리다

단어	뜻	예
늘이다	길이를 길게 하다	고무줄을 늘인다 / 바짓단을 늘이다 / 엿가락을 늘이다
늘리다	수·양·크기·시간을 많게 하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 실력을 늘리다 / 시간을 늘리다 / 집을 늘려 가다

시험 포인트 '길이'면 '늘이다', 나머지는 '늘리다'. '재산을 늘리다'(○)·'늘이다'(×), '고무줄을 늘이다'(○)·'늘리다'(×).

81 다리다 / 달이다 · 저리다 / 절이다 · 조리다 / 졸이다 · 주리다 / 줄이다

제57항

'다리다(옷을), 저리다(몸이), 조리다(음식을), 주리다(배를)'는 본디 'ㄹ' 받침이 없는 어간이고, '달이다(달다+이), 절이다(절다+이), 졸이다(졸다+이), 줄이다(줄다+이)'는 'ㄹ' 받침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말이다. 사동형은 원형을 밝혀 'ㄹ' 받침을 적는다.

'ㄹ' 없는 어간	'ㄹ' 어간+사동 '-이-'
다리다: 옷을 다린다(다리미로 펴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끓여 진하게 하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감각이 둔하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간이 배게 하다)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 찌개를 졸인다(국물을 줄게 하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굶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줄다'의 사동)

시험 포인트 '마음을 졸이다'(○)·'조리다'(×), '생선을 조리다'(○)·'졸이다'(×)는 뜻으로 가린다. 요리의 '조림'은 '조리다'에서 왔다. '다리미'와 '다리다', '달임'과 '달이다'를 연결하면 외우기 쉽다.

82 다치다 / 닫히다 / 닫치다 · 마치다 / 맞히다 · 부딪치다 / 부딪히다

제57항 · 제22항

'닫히다, 부딪히다'는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피동사이고, '닫치다, 부딪치다'는 강세 접미사 '-치-'가 붙은 능동사이다.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적중시키다)이며, '다치다, 마치다'는 별개의 단어이다.

단어	뜻	예
다치다	상처를 입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닫히다	'닫다'의 피동(닫아지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치다	'닫다'의 강세(세게 닫다)	문을 힘껏 닫쳤다
마치다	끝내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맞다'의 사동(적중시키다, 맞게 하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 과녁을 맞히다 / 주사를 맞히다
부딪치다	'부딪다'의 강세(능동)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 파도가 바위에 부딪친다
부딪히다	'부딪다'의 피동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 벽에 부딪히다

시험 포인트 '정답을 맞히다'(○)·'맞추다'(×), '자동차에 부딪혔다'(피동, 당함)·'자동차를 부딪쳤다'(능동)의 구별이 핵심이다. '-히-'는 피동, '-치-'는 강세로 기억한다.

83 바치다 / 받치다 / 받히다 / 밭치다

제57항

'바치다'는 '드리다·내놓다', '받치다'는 '밑에서 괴다·우산을 펴 들다', '받히다'는 '받다[觸]'의 피동(들이받음을 당하다), '밭치다'는 '밭다(거르다)'의 강세형이다. 네 단어 모두 발음이 [바치다]로 같거나 비슷해 뜻으로만 구별한다.

단어	뜻	예
바치다	드리다, 내놓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 세금을 바치다
받치다	밑에서 괴다, 펴 들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 책받침을 받친다 / 쟁반에 받치다
받히다	들이받음을 당하다(피동)	쇠뿔에 받혔다 / 차에 받히다
밭치다	체 따위에 걸러 국물을 빼다	술을 체에 밭친다 / 국수를 체에 밭치다

시험 포인트 '우산을 받치다'(○)·'받히다'(×), '소에게 받히다'(○)·'받치다'(×)가 빈출이다. '당하다'의 뜻이면 피동 '-히-'다.

84 반드시 / 반듯이 · 이따가 / 있다가

제57항 · 제25항

'반드시(꼭)'는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서 온 부사이므로 소리대로 적고, '반듯이(바르게)'는 '반듯하다'의 어근을 밝혀 적는다. '이따가(조금 뒤에)'는 부사로 굳어져 소리대로 적고, '있다가'는 '있다'의 어간에 어미 '-다가'가 붙은 활용형이다.

단어	품사·뜻	예
반드시	부사, 꼭·틀림없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 반드시 성공한다
반듯이	부사, 바르게('반듯하다')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 줄을 반듯이 긋다
이따가	부사, 조금 뒤에	이따가 오너라 / 이따가 다시 말하자
있다가	'있다'+'-다가'(있고 나서)	돈은 있다가도 없다 / 집에 있다가 나왔다

시험 포인트 '반듯이'는 '반듯하게'로, '있다가'는 '있고 나서'로 바꿔 자연스러우면 그 표기다. '이따가'는 '있다'와 어원이 같지만 시간 부사로 굳어져 별개 표기가 되었다.

85 부치다 / 붙이다

제57항 · 제22항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으로 '붙게 하다'의 뜻이 살아 있을 때 쓰며 원형을 밝혀 적는다. '부치다'는 '붙다'의 뜻에서 멀어진 여러 의미(보내다, 힘이 모자라다, 회부하다, 농사짓다, 지지다 등)에 쓰며 소리대로 적는다.

부치다(붙다의 뜻 없음)	붙이다(붙게 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모자라다)	우표를 붙인다
편지를 부친다(보내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논밭을 부친다(농사짓다)	흥정을 붙인다 / 싸움을 붙이다
빈대떡을 부친다(지지다)	불을 붙인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인쇄에 부치는 원고	감시원을 붙인다 / 조건을 붙인다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맡기다)	취미를 붙인다 / 별명을 붙인다

시험 포인트 '편지를 부치다'(○)·'붙이다'(×), '우표를 붙이다'(○)·'부치다'(×). 물리적·추상적으로 '달라붙게' 하는 뜻이면 '붙이다', 그 밖은 '부치다'다. '힘에 부치다'도 '부치다'다.

86 시키다 / 식히다 · 안치다 / 앉히다

제57항 · 제22항

'식히다(식다+히), 앉히다(앉다+히)'는 사동 접미사가 붙은 말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고, '시키다(하게 하다), 안치다(밥·떡을 솥에 넣다)'는 별개의 단어이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단어	뜻	예
시키다	하게 하다, 주문하다	일을 시킨다 / 음식을 시키다
식히다	'식다'의 사동(차게 하다)	끓인 물을 식힌다 / 열을 식히다
안치다	밥·떡 등을 솥에 넣어 불에 올리다	밥을 안친다 / 시루에 떡을 안치다
앉히다	'앉다'의 사동(앉게 하다)	윗자리에 앉힌다 / 아이를 의자에 앉히다

시험 포인트 '밥을 안치다'(○)·'앉히다'(×)는 단골 문제다. '솥에 넣는다'는 뜻일 때만 '안치다'다.

87 하노라고 / 하느라고 · -느니보다 / -는 이보다 · -(으)리만큼 / -(으)ㄹ 이만큼

제57항

'-노라고'는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의 뜻, '-느라고'는 '하는 일로 말미암아'의 뜻인 어미이다. '-느니보다, -(으)리만큼'은 어미이므로 붙여 쓰고, '-는 이보다, -(으)ㄹ 이만큼'은 의존 명사 '이(사람)'가 들어간 구이므로 띄어 쓴다.

형태	기능	예
-노라고	나름대로 한다고(어미)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느라고	그 일로 말미암아(어미)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느니보다	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는 이보다	'이'=사람(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형태	기능	예
-(으)리만큼	어미('-ㄹ 정도로')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으)ㄹ 이만큼	'이'=사람(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시험 포인트 '이'를 '사람'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하느라고'(원인)와 '하노라고'(의도)는 뒤 문장과의 관계로 가린다.

88 -(으)러(목적) / -(으)려(의도)

제57항

'-(으)러'는 가거나 오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로 '가다, 오다' 등 이동 동사와 어울린다. '-(으)려'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를 나타내며 보통 '-(으)려(고) 하다' 꼴로 쓰인다.

어미	뜻	예
-(으)러	이동의 목적	공부하러 간다 /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 / 밥 먹으러 가자
-(으)려	의도·의향	서울 가려 한다 / 책을 사려고 돈을 모았다 / 밥을 먹으려 했다

시험 포인트 '하려고'(○)·'할려고'(×), '가려면'(○)·'갈려면'(×)처럼 'ㄹ'을 덧붙이는 오류가 많다. '-(으)려'에는 'ㄹ'이 더 붙지 않는다.

89 -(으)로서(자격) / -(으)로써(수단)

제57항

'-(으)로서'는 지위·신분·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으)로써'는 재료·수단·방법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로써'는 '로'만으로도 같은 뜻을 나타낼 수 있지만, '로서'의 자리에 '로'를 쓰면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조사	뜻	예
-(으)로서	자격·지위·신분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 학생으로서 할 일 / 부모로서 책임
-(으)로써	재료·수단·방법·시간의 기준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 / 올해로써 십 년이 되었다

시험 포인트 '-로서'는 '-인 자격으로', '-로써'는 '-을 가지고'로 바꿔 보면 가려진다. '대화로써 해결하다'(수단), '친구로서 충고하다'(자격).

90 '웃-'과 '윗-' — 아래·위 대립이 있으면 '윗-', 없으면 '웃-', 거센소리·된소리 앞은 '위-'

표준어 규정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으므로 '위-'로 하고,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적는다.

구분	예
'윗-'(아래·위 대립 있음)	윗니, 윗도리, 윗목, 윗몸, 윗배, 윗입술, 윗자리, 윗변, 윗눈썹, 윗사람
'위-'(된소리·거센소리 앞)	위짝, 위쪽, 위채, 위층, 위턱, 위팔
'웃-'(아래·위 대립 없음)	웃돈, 웃어른, 웃옷(겉옷), 웃국, 웃기, 웃비

시험 포인트 '윗옷'(아랫옷과 대립, 상의)과 '웃옷'(겉에 입는 옷)은 뜻이 다르다. '윗층'(×)·'위층'(○), '웃어른'(○)·'윗어른'(×)이 최빈출이다.

91 '-장이'와 '-쟁이' — 기술자는 '-장이', 성질·습관은 '-쟁이'

표준어 규정 제9항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장이'는 한자 '장(匠)'에서 온 것으로 손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하고, '-쟁이'는 어떤 특성이나 습관을 가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접미사	예
'-장이'(기술자)	미장이, 유기장이, 땜장이, 양복장이, 옹기장이, 대장장이, 칠장이
'-쟁이'(성질·습관·그 밖)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골목쟁이, 발목쟁이, 겁쟁이, 욕심쟁이, 고집쟁이, 개구쟁이, 점쟁이, 환쟁이

시험 포인트 '미장이'(○)·'미쟁이'(×), '멋쟁이'(○)·'멋장이'(×). '점쟁이, 환쟁이'는 기술자처럼 보이지만 전통 기술자로 보지 않아 '-쟁이'다. '양복장이'(기술자)와 '양복쟁이'(양복 입은 사람) 둘 다 가능하되 뜻이 다르다.

92 설레다·바라다·삼가다·개다 — 불필요한 '이'를 넣지 않는다

표준어 규정(기본형 오류)

'설레이다, 바래다(희망), 삼가하다, 개이다'는 모두 잘못된 기본형이다. 표준어는 '설레다, 바라다, 삼가다, 개다'이므로 활용형과 명사형도 여기에서 나온다. 기본형을 잘못 알면 '설레임, 바램, 삼가해, 개인 날씨' 같은 오류가 연쇄적으로 생긴다.

표준 기본형	맞는 활용·명사형	틀린 표기
설레다	설레는 마음, 설렘, 설레어/설레	설레이다, 설레임, 설레이는
바라다	바라는 바, 바람, 바라/바랐다	바래다(희망의 뜻), 바램, 바래
삼가다	삼가는, 삼가 주세요, 삼가야	삼가하다, 삼가해 주세요
개다(날씨)	날이 개면, 갠 하늘, 개었다	개이다, 개인 하늘

시험 포인트 '바래다'는 '색이 바래다, 배웅하다'의 뜻으로는 표준어다. '설렘'(○)·'설레임'(×), '바람'(○)·'바램'(×)은 서술형에서 감점의 단골이다.

93 '-데'와 '-대' — 직접 경험은 '-데', 남의 말 전달은 '-대'

표준어 규정(어미 구별)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회상하여 말하는 종결 어미('-더라'의 뜻)이고,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남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할 때 쓴다. '-ㄴ데'는 연결 어미로 배경 설명에 쓰인다.

형태	뜻	예
-데(=-더라)	직접 경험한 회상	그 집 음식이 참 맛있데. / 어제 보니 그 사람 키가 크데.
-대(=-다고 해)	남의 말 전달	그 집 음식이 참 맛있대. / 내일 비가 온대. / 왜 이렇게 덥대?(의문·놀람)
-ㄴ데/-는데	배경·상황 제시(연결)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 날씨가 좋은데 나가자.

시험 포인트 '-더라'로 바꿔 자연스러우면 '-데', '-다고 해'로 바꿔 자연스러우면 '-대'다. '맛있데'(내가 먹어 봤다)와 '맛있대'(남이 그렇다더라)의 의미 차이를 묻는다.

94 '-이에요 / -예요 / -에요' — 받침 있으면 '-이에요', 없으면 '-예요', 아니에요

표준어 규정 제26항(복수 표준어) 응용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이다. 받침 있는 체언 뒤에는 '-이에요'를 그대로 쓰고, 받침 없는 체언 뒤에서는 '-이에요'가 '-예요'로 줄어든다. '아니다'는 용언이므로 어간 '아니-'에 '-에요'가 붙어 '아니에요'(준말 '아녜요')가 된다.

환경	맞는 표기	틀린 표기
받침 있는 체언 뒤	책이에요, 학생이에요, 집이에요	책이예요, 학생이예요
받침 없는 체언 뒤	나무예요, 의사예요, 거예요(것이에요)	나무에요, 의사이예요, 거에요
용언 '아니다'	아니에요, 아녜요	아니예요
이름 뒤	영숙이에요(받침 ○), 지수예요(받침 ×)	영숙이예요, 지수에요

시험 포인트 '거예요'(○)·'거에요'(×), '아니에요'(○)·'아니예요'(×)가 최빈출이다. '이에요'에서 '이'가 줄면 '예요'가 되고, 받침 뒤에서는 줄 수 없다는 원리로 접근한다.

95 '안'과 '않' — '안'은 부사(아니), '않'은 용언(아니하-)

제40항 붙임 1 응용

'안'은 '아니'의 준말인 부사로 용언 앞에서 띄어 쓰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인 보조 용언의 어간으로 '-지' 뒤에서 활용한다. '안'을 빼도 문장이 되면 '안', '아니하'로 풀리면 '않'이다.

형태	품사	예
안(=아니)	부사, 용언 앞에서 띄움	안 먹는다 / 안 간다 / 안 예쁘다 / 안 돼
않-(=아니하-)	보조 용언 어간, '-지' 뒤	먹지 않는다 / 가지 않았다 / 예쁘지 않다 / 되지 않아

시험 포인트 '안 되다'(○)·'않되다'(×), '하지 않았다'(○)·'하지 안았다'(×). '않'은 반드시 '-지' 뒤에, '안'은 반드시 용언 앞에 온다.

96 '왠지'와 '웬' — '왠지'는 '왜인지', 그 밖은 모두 '웬'

표준어 규정(준말·관형사 구별)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부사로 '왠지 모르게'처럼만 쓰인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의 뜻을 가진 관형사로 뒤에 명사가 온다. '웬일, 웬걸, 웬만하다, 웬만큼'은 모두 '웬'으로 적는다.

형태	품사·뜻	예
왠지	부사(왜인지)	왠지 슬프다 /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다
웬	관형사(어떠한, 어찌 된)	웬 사람이 찾아왔다 / 웬일이니 / 웬걸 / 웬만하면 / 웬만큼

시험 포인트 '왠지' 하나만 '왠'이고 나머지는 전부 '웬'이다. '웬일'(○)·'왠일'(×), '왠지'(○)·'웬지'(×).

97 오랜만·오랫동안·금세·역할·어떡해 — 자주 틀리는 단일 표기

표준어 규정(준말·형태)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이므로 사이시옷이 없고, '오랫동안'은 '오래'와 '동안'의 합성어로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금세'는 '금시(今時)에'의 준말이며, '역할(役割)'은 한자음대로 적는다.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서술어 자리에만 쓴다.

맞는 표기	원리	틀린 표기
오랜만, 오랜만에	'오래간만'의 준말(ㅅ 없음)	오랫만, 오랫만에
오랫동안	오래+동안 합성어, [오랟똥안] 된소리(사이시옷)	오랜동안
금세	'금시에'의 준말	금새
역할(役割)	한자 '割'의 음은 '할'	역활
어떡해(서술어) / 어떻게(부사)	'어떻게 해'의 준말 / '어떻다'의 활용	어떻해, 어떡게

시험 포인트 '오랜만'과 '오랫동안'을 한 문제에 넣어 사이시옷 유무를 묻는다. '나 어떡해'(서술어)와 '어떻게 하지'(부사)의 쓰임도 구별한다.

98 '-던지'와 '-든지', '-ㄹ는지'와 '-ㄹ런지' — 자주 섞이는 어미 네 가지

제56항 응용 · 표준어 규정

'-던지'는 과거 회상, '-든지'는 선택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또한 추측·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는 '-ㄹ는지'가 표준이며 '-ㄹ런지'(×)는 틀린 형태이다. '-ㄹ는지'의 '는'은 발음 [는]과 달리 글자로는 그대로 적는다.

어미	뜻	예	틀린 표기
-던지	과거 회상·정도	얼마나 춥던지 손이 얼었다	얼마나 춥든지(×)

어미	뜻	예	틀린 표기
-든지	선택·무관	가든지 말든지 해라	가던지 말던지(×)
-ㄹ는지	추측·의문	비가 올는지 모르겠다 / 될는지	올런지, 될런지, 올른지

시험 포인트 '될는지'(○)·'될런지'(×)는 고난도 문제의 단골이다. '-ㄹ는지' 외에 '-ㄹ런지'라는 어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99 날아·날라 · 빌다·빌리다 · 썩이다·썩히다 — 모양이 비슷한 용언의 뜻 구별

제57항 유형(의미 구별)

모양이 비슷한 용언을 뜻으로 구별한다. '날라다'는 '나르다(운반하다)'의 활용형이고, '날아가다'는 '날다'에서 왔다. '빌다'는 '소원·용서를 바라다', '빌리다'는 '남의 것을 얻어 쓰다'이다. '썩이다'는 '속을 상하게 하다', '썩히다'는 '물건을 썩게 하다·재능을 묵히다'이다.

단어	뜻	예	비교
날라(나르다)	운반하다	짐을 날라 주세요	새가 날아갔다(날다)
빌다	소원·용서를 바라다	용서를 빌다 / 행운을 빌다	돈을 빌리다 /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썩이다	속을 상하게 하다	부모 속을 썩이다	음식을 썩히다 / 재능을 썩히다

시험 포인트 '이 자리를 빌어'(×)·'빌려'(○)는 공식 문서에서도 흔히 틀린다. '속을 썩이다'(○)·'썩히다'(×)도 빈출이다.

100 '-읍니다'는 없다 — 있습니다·없습니다, 그리고 있음·없음

표준어 규정 제17항 · 맞춤법 제11항

1988년 개정 이후 종결 어미는 '-습니다/-ㅂ니다'로 통일되어 '-읍니다'는 쓰지 않는다. 받침 있는 어간 뒤에는 '-습니다', 받침 없는 어간 뒤에는 '-ㅂ니다'가 온다. 다만 명사형 '있음, 없음'은 '-음'이 붙은 것이므로 '있슴'(×)으로 적지 않는다.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원리
있습니다, 없습니다, 먹습니다, 좋습니다	있읍니다, 없읍니다, 먹읍니다	받침 뒤 '-습니다'
갑니다, 옵니다, 합니다, 예쁩니다	가습니다, 오습니다	모음 뒤 '-ㅂ니다'
있음, 없음, 먹음(명사형)	있슴, 없슴, 먹슴	명사형 어미는 '-음'
-(스)ㅂ니까?	있읍니까	의문형 된소리(제53항)

시험 포인트 '있음'(○)·'있슴'(×)은 '-습니다'와 혼동해 생기는 오류다. '있습니다'의 '습'과 '있음'의 '음'은 서로 다른 어미라는 점을 묻는다.